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제1063호

삼성전자 "SUHD로 TV혁명 이룬다"

"소비자 편리성에 초점 가장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

윤부근 사장 CES서 기자간담회

"차별화를 통해 진정한 SUHD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국의 공습, 일본의 반격 속에도 윤부근〈사진〉 삼성전자 CE(소비자 가전)부문 사장은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기사 3면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가전사업은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다"며 "내년 러시아 등 세계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공략,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특히 그는 올해 TV사업이 소폭 역성장(금액 기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UHD TV'를 통한 진정한 TV 혁명을 강조했다. 윤 사장은 "2014년은 UHD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해였다면, 올해는 SUHD TV를 통해 진정한 UHD TV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장의 이날 발언의 상당부분은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올해 TV사업 전략에 대해 "중국 등 경쟁업체들이 어떤 기술과 제품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소비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화질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가장 차별화된 제품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차세대 TV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UH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북미 기준 50%를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소비자가 진정한 UHD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지영 기자 gutjy@

"현대차는 81조 통크게 쐈는데"

재계 깊어가는 '투자 고민'

현대자동차그룹이 4년간 80조원을 쏟아붓는다. 재계는 현대차그룹의 공격적 투자에 놀라면서도 투자 확대에 대한 고민으로 마른 침을 삼키고 있다.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방침을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고 선언한 정몽구 회장은 이어 6일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공장 신·증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시설투자에 49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31조6000억원 등 모두 80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균 20조2000억원의 투자로, 그간 현대차의 최대 투자액인 작년 14조9000억원보다 35%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이 연초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이제 이목은 삼성을 비롯해 SK, LG 등 다른 그룹들에 쏠리고 있다. 현대차가 "투자액 중 4분의 3이 국내에서 집행됨에 따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만큼 타 그룹들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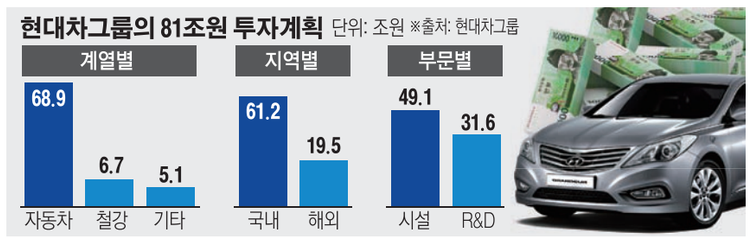
2012년부터 정확한 투자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 삼성은 올해 사상 최대인 50조원 안팎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중 경기도 평택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1차로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라인 1기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라인은 2017년 하반기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보수적 투자를 예상했던 다른 그룹들은 전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 계획이 SK, CJ, 효성, 대한항공 등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일부 그룹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현대차가 전체 투자의 상당액을 국내 투입하기로 한 것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와 맞아떨어지면서 다른 그룹들도 국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진·최재혁 기자 js62@

현대차그룹의 81조원 투자계획 단위: 조원 ※출처: 현대차그룹



4년만에 CES 찾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5'를 찾았다. 정 부회장은 CES 개막일인 이날 오후 2시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마련된 현대차 전시장을 찾았다. 정 부회장이 CES에 참석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정 부회장은 주요 자동차 업체의 부스를 돌아보며 경쟁업체들의 스마트카 준비 현황 등을 살펴봤다. 연합뉴스

바닥 모를 유가, 48달러도 깨졌다

뉴욕증시 약세 지속… 국내 휘발유값 1300원대 초읽기

국제유가의 '날개 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감소에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11달러(4.2%) 떨어진 배럴당 47.9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주부터 유럽 주요국에 대한 공식 판매가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겼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는 전했다. ▶관련기사 11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기름 가격 역시 13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정유사들이 지난주 ℓ당 10원 정도 올렸던 휘발유 공급 기준가격을 다시 30원씩 인하함에 따라 휘발유를 ℓ당 1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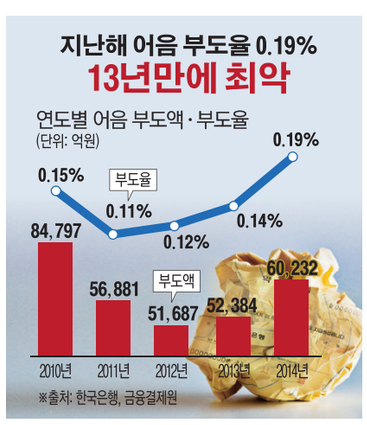
유가 급락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뉴욕증시는 약세를 지속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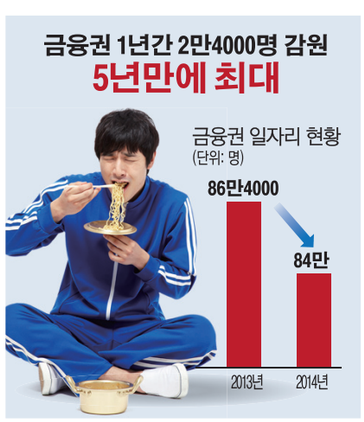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News

지난해 어음부도액 6조원 넘어

지난해 어음 부도율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7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어음 교환액 3178조2505억원 중 부도액은 6조232억원으로, 연평균 부도율이 0.19%(전자결제 조정 전)에 달했다. 이는 2001년 0.38%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음 부도율은 1996년 0.17%에서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0.52%로 치솟은 후 2001년까지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2년 0.11%로 떨어졌다. 이진영 기자 mint@





금융권 구조조정 칼바람 거셌다

지난해 금융권 일자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2만4000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금융·보험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균 8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줄었다. 2013년 1~11월 금융권 종사자가 평균 86만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가 1년 만에 2만4000개 감소한 것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5만5000명이 줄어든 이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안철우 기자 acw@

International CES '혁신상' 받은 국내 벤처 두곳

깔창 하나로…

쓰리엘랩스



걸음걸이 정보로 사용자 건강체크 '풋로거' 개발 스마트깔창 기술 세계적 전무후무

깔창 하나로 태평양을 건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있다. 기존엔 없던 스마트 깔창으로 7일 '2015 북미 가전전시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쓰리엘랩스(3L Labs)가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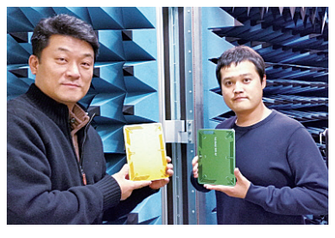
2015 CES가 주목한 쓰리엘랩스의 제품은 족적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깔창 '풋로거(Footlogger)'다. 그동안 손목 등에 채우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많았지만, 신발에 IT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기술적 장벽이 높아 흔치 않았다. 특히 쓰리엘랩스의 스마트 깔창과 센서 기술은 기술적으로도 전무후무하다는 것이 이진욱〈사진〉 대표의 자랑이다.

이 대표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걸음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련된 IT기술 적용 사례가 없어 처음으로 풋로거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총 개발기간 중 4년 정도를 원천기술인 압력센서와 충전기술 개발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압력센서들은 신발 깔창에 적용하기엔 압력에 약했지만, 우리가 개발한 압력센서는 압력에도 강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 깔창에 적용할 수 있다"며 "충전기와 50mm 정도의 거리만 되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기술도 개발해 사용 편의성 또한 높였다"고 덧붙였다.

쓰리엘랩스는 올해 걸음걸이 등을 건강 분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 병원 등과 함께 제품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직원 둘이서…

브로콜리



초박형 고성능 '풀메탈 와이파이 공유기'로 호평 직원 단 2명뿐 2009년에도 수상

단 2명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브로콜리가 7일 '2015 북미 가전전시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초박형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책상이나 벽에 걸 수 있는 '풀메탈 와이파이 공유기'로 CES의 이목을 끌었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는 최근 유선 인터넷 전송속도가 기가비트로 발전하면서 안테나도 5개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기가비트 와이파이 공유기는 제품 디자인을 포기하면서 많은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애플만이 내장 안테나 6개를 사용한 기가비트 와이파이 공유기를 출시했지만, 커버리지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브로콜리는 동일 금속 표면에 자체 개발한 안테나 6개를 이용, 기가비트 와이파이 공유기에 사용되는 다이폴 안테나로 대체했다. 초박형 디자인과 다이폴 안테나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공유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브로콜리는 관련 기술 특허의 국내 등록, 해외 출원도 완료했다.

이주열〈사진 왼쪽〉 브로콜리 대표는 "나를 포함해 2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개발과 가공까지 하고 있다"며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2009년 다기능 평면케이블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7년 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2~3명의 연구원과 꾸준히 안테나 기반 제품을 연구개발·생산해 왔다. 2009년 CES 혁신상 수상으로 유럽 등지에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박현주 회장 ▶2



은수미 의원 ▶4

Money 수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신년사로 본 금융권 화두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박현주의 도전 "골프용품으로 IPO 추진"

〈미래에셋그룹 회장〉



"고객자산이 최우선" 뚝심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힘써
타이틀리스트·풋조이 보유
'아큐시네트' 인수 4년만에
내년 이후 상장 목표 '급물살'
박회장 속도경영 앞당길수도

신년사를 통해 고객과 속도경영, 혁신을 강조했던 박현주〈사진〉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발빠르게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박 회장은 자회사 아큐시네트 상장 추진의사를 밝혔다. 투자자 이익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지 꼭 나흘 만이다.

7일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했던 아큐시네트의 상장을 검토해 왔다"며 "운용사의 기본 목적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고 상장은 그 가운데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래에셋은 지난 2011년 미래에셋파트너스7호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했던 아큐시네트의 상장 계획을 밝혔다. 상장은 소울베리캐피털사가 총괄 자문사로 나서 추진한다. 향후 기업공개(IPO) 과정의 재무·법률적 상황에 대해 미래에셋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 상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상장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내년 이후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박 회장의 평소 행보를 감안했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 시기가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내년 이후 상장'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이는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겠다는 의지일 뿐 반드시 그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박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했던 속도와 고객 우선 경영전략에서 읽을 수 있다.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으로, 단일 상품에서 융합상품으로 고객의 자산을 분산시키겠다"며 "궁극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아가 "고객이 우리에게 준 기초자산을 지키는 데(protect)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이 같은 의지를 천명한 지 나흘 만에 아큐시네트의 상장 전략이 나왔다. 그가 대외적으로 경영전략을 강조했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계획이 나온 만큼 조만간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했던 아큐시네트는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등 골프 브랜드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골프의 대중화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브랜드 가치 도 꾸준히 상승했다. 미래에셋 역시 이러한 시기를 노려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컴투스 떠난 박지영, '벤처투자가'로 조용한 변신



국내 게임업계 '잔다르크'
게임빌에 지분 매각후 떠나
팔고나니 주가 3배 급등
뒤늦게 빛본 전략에 재주목
'오퍼튜니티펀드'에 출자
3년만에 후배양성 위해 나서

15년간 이끌어온 컴투스를 게임빌에 매각하고 홀연히 떠난 박지영〈사진〉 대표가 벤처투자자로 변신했다.

10여년 전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정받은 후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싶다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 대표가 건강한 벤처 생태계 구현에 앞장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지영 전 컴투스 대표는 최근 펀드 조성 및 엔젤투자 등을 통해 후배 양성을 위한 행보를 조용히 시작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4월 '알토스코리아 오퍼튜니티펀드'에 장병규 첫눈 창업자, 권도균 이니시스 창업자 등 국내 대표 벤처 투자가들과 함께 출자자로 참여했다. 펀드는 총 5000만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사겸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퓨처플레이의 주주이자 고문 역할을 맡으며 투자자로의 변신을 조용히 알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복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93학번으로 남편이자 동기인 이영일 부사장과 컴투스를 창립, 1999년 국내 업체 최초로 휴대폰용 게임을 개발하면서 주목받았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적 여성 경영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7년에는 영국의 모바일 콘텐츠 전문월간지 '엠이(ME)'가 선정한 '2007년 세계 톱50 경영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게임빌 송병준 대표에게 보유 지분을 전격 매각, 게임업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컴투스 주가가 세 배 이상 오르면서 박 전 대표는 다시 주목받았다. 매각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었느냐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표와 이양일 전 부사장 부부는 컴투스 지분 19.52%를 주당 3만2470원 총 639억원에 게임빌에 넘겼다. 2만원대 후반인 당시 주가보다는 비싼 가격이지만 6일 종가 기준 주가 15만2200원을 적용하면 3281억원가량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무엇보다 '낚시의 신'과 '서머너즈 워' 모두 박 전 대표 부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개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많은 실패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컴투스를 일궈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박 전 대표는 도전정신과 학습자세를 강조하며 성공적 경영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성공 방정식을 바탕으로 벤처투자계를 주름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SK플래닛 사장〉

메신저앱 날개단 서진우 '글로벌 O2O 시장' 노크

〈Online to Offline〉



'프랭클리'앱으로 캐나다 상장
사라지는 메시지로 유저 주목
해외사업 가시적 성과 자신감

SK플래닛을 5조 회사로 키워내겠다던 서진우〈사진〉 사장의 행보가 본격화됐다. SK플래닛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해외진출에 드디어 가시적인 첫 성과를 낸 것이다.

SK플래닛의 미국법인인 프랭클리는 5일(현지시간) 세계 7위 주식시장인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의 산하 토론토 벤처거래소 상장에 성공했다. 프랭클리는 읽으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신저 앱 '프랭클리'로 주목 받고 있다.

프랭클리의 전신은 틱톡 플래닛으로 서 사장이 해외 020 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에 출범시킨 미국 법인이다. 당시 틱톡 플래닛은 '틱톡플러스'라는 메신저를 내놓는 등 다양한 실험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던 중 서 사장은 실리콘 벨리에서 벤처를 하던 스티브 정 프랭클리 대표를 만나게 됐다. 서 사장은 SK플래닛의 메신저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프랭클리의 진출을 도왔다. 이 둘의 합작은 성공적이었다. 200만이 넘는 가입자를 모은 데 이어, 스탠포드대학과 현지 투자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서 사장은 지난해 말 캐나다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투자사들에게 앱인 프랭클리를 각인 시키기 위해 법인명을 아예 프랭클리로 바꿔버렸다. 서 사장은 이를 시작으로 해외 020 커머스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서 사장은 지난해 비콘 020 서비스 업체인 '샵킥'(SHOPKICK)을 전격 인수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콘 020 서비스 '시럽'의 기술력에다 'OK캐시백'으로 대변되는 마일리지 서비스까지 얹혀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메신저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프랭클리가 이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게 서 대표의 복안이다.

박성제 기자 psj@

〈포스코 회장〉

'철강인재' 키우기 나선 권오준

포스코인재창조원 법인 승격
'맞춤형 인재' 육성 의지 작용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이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산하 부서급으로 운용하던 포스코인재창조원을 법인으로 승격해 철강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스코경영연구소를 인적분할해 포스코인재창조원(가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기일은 내달 1일이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포스코경영연구소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자본금은 190억원이다. 분할 설립회사인 포스코인재창조원은 교육서비스 및 직원 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담당한다. 자본금은 5억원이다.

포스코가 인재육성 부서를 법인으로 승격한 데는 권 회장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CEO레터'를 통해 "'위대한 포스코(POSCO the Great)'를 지향하는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포스코 임직원 모두가 창의력으로 무장한 전문지식형 인재,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지식형 인재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행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달립니다



www.kogas.or.kr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사례 ①

고성능 해수가열기 / (주)강원NTS

(주)강원NTS가 국산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고성능 해수가열기'는 LNG 생산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 기자재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한국 따라 잡자"… 中 '스마트 군단' 日 '4K TV' 총공세

CES 2015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최첨단 IT·가전 제품을 앞세워 세계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쇼 CES 2015에서 일본은 초고해상도 '4K 생태계'를 중심으로 전자·가전 제품 명가로서의 위상 회복에 나섰다. 또 최근 몇 년 새 급속한 기술적 성장을 이룬 중국은 첨단 기술을 입은 모바일 기기와 가전 제품을 통해 국내 기업 아성에 정면 도전을 선언했다.



레노버가 자체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 바이브 밴드 VB10(Vibe Band VB10). 사진제공 레노버



소니가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4.9㎜ 두께의 평판 액정 TV 'X900C' 사진제공 소니

중국 하이센스·TCL '커브드TV' 공개 ZTE·레노버 차세대 스마트폰

일본 소니, 세계서 가장 얇은 TV 선봬 파나소닉 '4K 블루레이' 시제품

◇중국, 커브드 TV 총공세 = 중국의 대표 TV 제조업체 하이센스와 TCL, 하이얼은 초고해상도(UHD) 커브드 TV를 주력 제품으로 내놨다. 세 기업의 부스 입구와 메인에는 UHD 커브드 TV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제품 박람회 IFA 2014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보다 먼저 퀀텀닷 TV를 선보인 TCL은 올해도 퀀텀닷 TV에 드라이브를 건다.

TCL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55인치 4K UHD(3840X2160) TV 'H9700'을 이번 CES에서 공개하며 올해를 북미시장 공략의 원년으로 삼았다. TCL과 함께 지난해 IFA에서 퀀텀닷 TV를 공개한 하이센스는 UHD 커브드 TV와 함께 '패널 프리 디스플레이' 전략을 공개했다. 대화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지만 가격 상승 및 패널 크기 한정 등의 이유로 디스플레이 크기 확대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이센스는 풀HD(1920X1080) 해상도 영상을 100인치로 투사할 수 있는 패널 프리 디스플레이용 프로젝터 'VIDAA'를 공개했다.

ZTE와 레노버 등 모바일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중국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새로운 전략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ZTE는 맞춤형 사용자환경(UI)과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된 최신 스마트폰 '스타2'와 '누비아Z7' 공개와 더불어 새로운 소비자 경험 창출을 위한 웨어러블, 액세서리, 모바일 광대역 제품, M2M(사물 간 통신)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IT 기기를 선보였다.

레노버는 대화면 스마트폰 패블릿에 방점을 찍었다. 인텔 기반 하이엔드 스마트폰 'P90'은 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으며 손떨림 보정 기술과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탑재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5.3인치 풀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바이브 X2프로'도 함께 공개되며 대세로 자리잡은 패블릿 시장 선점을 본격화했다.

◇일본, 모든 영상기기 '4K화' 부활 시동 = TV 명가 일본 기업들은 4K 생태계 구축을 통한 재기를 노린다. 풀HD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4K UHD(3840X2160)가 최근 TV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일찌감치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소니는 4K 초고해상도 기술,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스마트웨어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제품들과 시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눈길을 끈 제품은 소니가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4K 프로세서 'X1'가 적용된 총 11종의 4K '브라비아 LCD TV'다. 세 가지 시리즈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4.9㎜ 두께의 평판 액정 TV 'X900C'도 포함돼 있다. 특히 TV와 모바일 기기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올해 출시할 4K·풀HD TV 제품군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샤프는 기존 2400만개 픽셀에 4200만개를 추가, 6600만개의 서브 픽셀을 구현하는 새로운 '비욘드 4K TV'를 선보였다. 파나소닉은 4K UHD 블루레이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이와 함께 4K UHD TV, 방수기능 적용 4K 웨어러블 카메라, 4K UHD 지원 캠코더·루믹스 콤팩트 카메라 등도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지영 기자 gutjy@

가전전시회서 모터쇼 연 현대車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를 찾았다.

그는 현대차 전시장을 점검한 뒤 글로벌 경쟁업체인 포드,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의 전시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정 부회장은 동행한 직원들과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 받으며 시종일관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정 부회장이 CES에 참석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자동차의 정보기술(IT)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현대차에게도 가전쇼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대차 관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2015 CES에 마련된 현대차 전시장에서 미래형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원격시동 '블루링크 시스템' 등 공개

벤츠·토요타 등 10여개 차업체 참가

현대차는 이번 CES에 대규모 전시장을 꾸렸다. '인간을 위한 기술'이란 주제로 꾸민 전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블루링크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전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동걸기, 문 여닫기, 주차장에서 자동차 찾기 등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 행동 패턴을 분석, 기록하는 인공지능 기능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연했다. 과거 지능을 갖춘 차를 소재로 인기를 끌었던 외화 '전격Z작전'의 '키트'가 현실 속으로 한발 짝 다가온 셈이다.

2015 CES에서는 자동차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 새 경향 중 하나로 꼽힌다.

디터 체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자동차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며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책이나 신문을 읽는 등 자유를 누리고 싶은 꿈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벤츠는 이번 전시회에서 운전자의 도움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동 주행차 'F105 럭셔리 인 모션'을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차와 벤츠를 비롯해 토요타, 크라이슬러, BMW 등 10여개 완성차 업체가 전시장을 마련했다. 또 보쉬, 덴소, 콘티넨털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참여했다. 올해 자동차 관련 회사의 전시장 규모는 5년 전에 비해 5배(1만5329㎡) 늘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지영 기자 gutjy@

"이게 바로 꿈의 화질" 삼성·LG부스 '북적'

수십대 고화질 TV로 눈길 잡고

IoT 등 최첨단 기술에 발길 멈춰

CES 2015의 주인공은 단연 'TV'였다. 현지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마련한 대형 부스들 전면에는 실제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초고해상도 TV 수십대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65·78·88인치 퀀텀닷 TV 'SUHD TV'로 구성된 하이라이트 존으로 시작된 2600㎡(약 790평) 규모의 삼성전자 전시장에는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105인치 벤더블 SUHD TV가 그 위용을 드러냈고 전시관 중앙에는 삼성전자의 신성장동력인 사물인터넷(IoT) 부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미래 생활을 보여줬다.

관람객들은 스마트 기기와 가전 제품, 자동차 등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사물인터넷 시연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물인터넷 시연을 보며 "환상적이다"라는 말을 쉴새 없이 내뱉었다.

TV, 사물인터넷, 가전, 모바일 등 각 분야별 부스마다 모인 관람객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동해 보는 등 제품이 제시하는 가치를 체험하는 데 열중했다.

LG전자의 부스 역시 수십대의 OLED TV가 처음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044㎡(약 618평) 규모의 LG전자 부스는 기술의 진화 및 차별성을 직접 경험해 보려는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쏟아질 듯이 선명한 OLED 화면으로 쏟아내는 화려한 영상에 관람객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감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OLED TV의 몰입감으로 관람객들은 TV 영상이 끝나 잠시 까만 화면이 나오는 동안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특히 LG전자의 두 번째 커브드 스마트폰 'G플렉스2'를 비롯, 스마트워치 'G워치R' 등이 전시된 모바일 코너에는 유독 젊은 관람객들이 많았다. G플렉스2 전시 코너에는 제품을 사용해 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들은 LG전자의 제품을 손목에 차 보고 손에 쥐어 보며 커브드 기술을 몸소 체험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지영 기자 gutjy@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과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조개혁·경제활력 두 사자 잡겠다"

최경환 부총리 신년 기자간담회

"하반기부터 정책효과 내수 회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올해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이후 정책 효과가 발휘되면 내수가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체감 경기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장률이 나아진다고 해도 수출 위주 성장이라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서 체감 경기가 못 따라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부문, 즉 노동, 금융, 교육, 공공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그런 가운데 경제 리스크 관리도 결코 소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 안정과 투자, 임대주택 육성 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산업은행에 관한 프로그램도 내놨지만 그것을 포함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올해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호재"라면서 "부분적으로 악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호재는 (이야기) 안 하고 악재만 자꾸 (이야기) 하니까 나쁜 것처럼 인식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공감대를 형성해도 현장에서 삐거덕거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 문제는 3월까지 (노·사·정이)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급물살' 인터넷전문銀 실효성은 "글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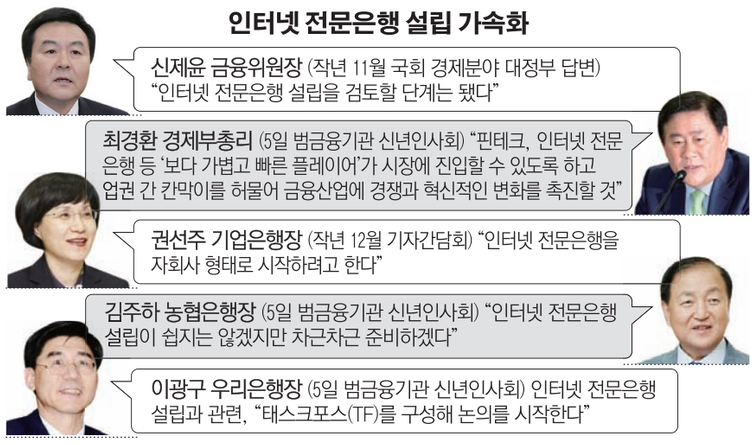
정부·금융수장들 설립 목소리 높여…인터넷뱅킹과 서비스 차별화·고금리 보장 의문

금산분리 완화 논의도 불가피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이 결합한 금융) 열풍 속에 정부와 금융 수장들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뜻한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가 인터넷뱅킹 등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금산분리 체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혁신적 서비스나 고금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제윤 위원장의 인터넷 전문은행 발언 후 추진 급물살…은행장들 화답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트렌드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또 이달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구축안'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한 금융권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농협·기업·우리 은행장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화답했다.

◇인터넷뱅킹 등과 차별화된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글쎄" =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면 경쟁을 촉발하고 점포운영 비용을 절약해 소비자들이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이 갖춰야 할 가장 주요한 요소인 고금리를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할 서비스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회의적 의견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소액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8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인터넷뱅킹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의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히 다른 서비스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의문이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한 미국, 중국 등은 땅이 넓어 점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필요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미 동네 곳곳에 은행 점포들이 들어서 있어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 불가피 =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4%로 제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 금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해 이미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둔 IT기업, 인터넷쇼핑몰 등이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객을 다수 보유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재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새정치연합 오늘 컷오프 '넘버3'는

문재인·박지원 양강 속 마지막 티켓 주인공 관심 집중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2·8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 누가 본선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예비경선에서는 박주선,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조경태(이상 기호순) 의원 등 5명 후보 가운데 3명을 추리게 된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양강을 형성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마지막 티켓 주인공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민집모(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 비노(비노무현) 중도파의 단일후보로 나선 박주선 의원과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출신으로, 486그룹을 대표하는 이인영 의원 중 한 사람이 3위로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유일한 영남 3선인 조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지난해 5·4 전대에 이어 당 대표 본선에 이름을 올리는 이변을 연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위 진출자가 누구냐에 따라 본선 경쟁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등도 변수로 꼽힌다. 최고위원 경선의 경우 전병헌, 이목희, 주승용, 유승희, 정청래, 박우섭, 노영관, 문병호, 오영식(기호순) 의원 등 9명 후보 가운데 1명만 떨어뜨리게 된다. 김미영 기자 bomnal@

"공무원 연금 개혁 잘해봅시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기업형 임대 8년으로 확정

기간따라 기금 차등 적용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지원 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 초과 중대형까지 폭넓게 공급하도록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 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금 지원 혜택이 없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형 임대 대출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가구당 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장기임대로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의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여의도 인물

은수미 의원·새정치연합

4월 보선서 '통진당 공석' 성남 출마

"첫 연고지인 지역민에 대한 약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과감히 포기

"노동문제 거대한 둑 붕괴 막을 것"

"성남 중원에서 주민들과 첫 연고를 맺고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 보선 출마는 지역민에 대한 예의이자 약속 이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성남 중원에 출마키로 했다.

은 의원은 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초 내년 총선을 생각했다. 지역구민들에게 인사드리고 5개월 동안 준비하고 공감하고 호흡하면서 재선을 도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11월 19일 지역구 사무실을 얻었는데 (한 달 만인) 12월 19일 (헌재의) 결정이 났다.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일찍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4월 보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성남 중원은 은 의원이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던 곳이다. 은 의원은 "이번 보선이 민주주의 역주행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결심한 것은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거대한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은 의원은 야권의 대표적 노동 전문가다.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난 한 해 기자회견만 320건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이기고 돌아온 의원은 훨씬 힘이 더 생긴다"며 "돌아와서 노동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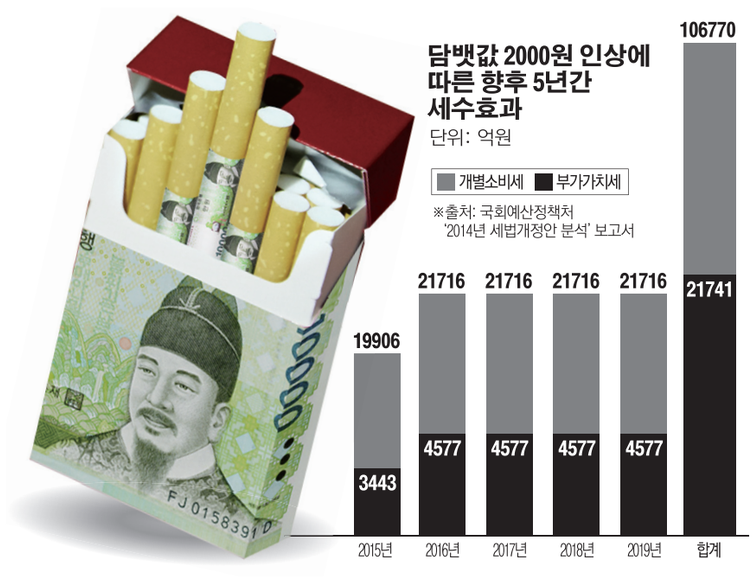
담뱃값 올리고선…국민건강 '뒷짐' 진 정부

불법 개비담배에 봉초담배…

변형담배 단속·제재 미뤄

담배업체 '꼼수' 마케팅도

'세수펑크' 메우기 의혹 커져



담뱃값 인상 후폭풍으로 싸게 피울 수 있는 변형 담배가 등장하고 담배업체의 편법 마케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담뱃값 인상의 목적으로 내세운 '국민건강 증진'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는 전날 저녁 기재부에 포장을 리뉴얼한 신제품 던힐에 대해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했다. 다만 리뉴얼 제품은 13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2000원 오른 4700원이 아닌 4500원에 판매되고 이달말이나 내달초 47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의 변경 내용을 판매 개시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 기재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에도 BAT코리아와 '메비우스' 등을 판매하는 JTI코리아는 본사와의 의견 조율을 이유로 신고를 늦추며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재고를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값을 묶어 두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더욱 문제는 연초부터 가격신고가 늦어진 데다 이마저도 4500원에 신고되고, 기존 가격의 재고제품까지 풀리면서 외국계 담배 사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자사 담배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업체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로써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도 무색해졌다.

경기침체로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족한 세입을 메우고자 골머리를 앓는 정부로선 무리해서 제재할 명분은 적다.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연간 세수 증가분은 2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증가분은 12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행법상 불법인 담배의 낱개 판매가 늘고 있지만 서민 정서를 고려해 단속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말아 피우는 봉초담배 생산도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현대차 '연비 과징금' 감경 검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현대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에 연비과장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를 보상한 현대차와 보상을 하지 않은 쌍용차에 과징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연비과장에 대해 매출액의 0.0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을 내야 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해외여행객 통한 '에볼라 감염' 주의보

기니 다녀온 40대 고열로 격리, 2차검사 '음성'… 국내유입 우려 높아져

서아프리카에서 귀국한 40대 한국 남성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한때 격리된 가운데 해외여행객을 통한 에볼라 유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아프리카 기니를 방문하고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최모(42)씨가 고열 등 에볼라 의심 증상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8층에 격리 수용됐다가 2차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최씨는 공항 검역 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도로 측정돼 격리 병원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격리 관찰 중이었다.

최씨는 격리 후 시행된 1차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 기간에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또 다른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차 검사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같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출현 지역인 서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뒤 이상 증상을 보인 한국인은 지금까지 모두 4명이다. 물론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아직 없지만 그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행객이 아닌 시에라리온 파견 긴급구호대를 통한 국내 유입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의료대 1명이 환자를 돌보다 에볼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독일 베를린 소재 샤리테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에볼라 대응의료시스템 구축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에볼라 위기대응 긴급구호대의 현지 의료활동 본격화에 앞서 국내 에볼라 대응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아 민간병원에서의 에볼라 매뉴얼 구축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진행단계인 에볼라 국내의료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단체에 대응체제 보완에 대해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쓰시던 휴대폰 삽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한 시민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우체국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증여세 면제 증명은 납세자 본인이 해야"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씨 패소

납세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여대생 청부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9)씨는 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인 류원기(68)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9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강남세무서는 윤씨가 류 회장에게 상환한 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윤씨가 교도소에 구속수감되면서 발생했다. 류 회장은 윤씨가 구입한 빌라를 매각했고, 빌라 매각대금 15억원을 그대로 받아 관리했다. 윤씨는 "류 회장이 준 돈을 다 갚은 셈인데, 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이 빌라 매각대금을 윤씨를 위해 사용한 정황이 없는 만큼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류 회장의 돈이 윤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윤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돌아온 칼바람… 고드름칼 '주렁주렁'



매서운 한파에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시민공원 선착장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부 강원내륙 및 산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며 내일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혔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검찰 제동에 '아차'… '황제노역' 뒤집은 대법

법 바뀐줄 모르고 일당 800만원 노역유치… 비상상고로 파기

지난해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법원이 최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다시 일당 800만원짜리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판결을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을 위반해 재판이 이뤄진 점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4억원을 선고한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문씨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서 8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2014년 5월 개정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형법이 개정된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 형법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문씨에 대해 8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3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원심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경산시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던 문씨는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총 245억여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조기개장 문제였나 이케아도 '매장균열'

제2롯데월드에 이어 최근 문을 연 이케아 매장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대형몰들이 무리하게 일찍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연 이케아의 1층과 주차장을 잇는 통로에서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갈라진 벽면에서 마감재 가루가 떨어질 정도의 균열이 발견됐다. 광명시는 즉각 보수 공사를 요구했지만, 이케아 측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도 "안전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매장 영업을 성급하게 시작하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건축 시공 초기에는 균열이 발생하므로 보수작업을 거쳐야 하는데도 건물이 안정되기 전에 무리하게 개장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나 벤틀리 모는 여자야"… 자산가 홀린 50대 꽃뱀

빌린 집·차로 부자 행세 세무사 등에 40억 사기

국세청 출신 남모 세무사가 한 여성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거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으로 알려진 하모씨는 강남의 330㎡짜리 대형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약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강남구 도곡동의 월세 1000만원짜리 대형 펜트하우스를 임차하고 벤틀리 승용차 등을 렌트하고서 의류 유통사업을 하는 2000억원대 자산가를 자칭하며 사교계에 등장했다.



그는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남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환심을 사고 나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재고 의류를 구입해 해외에 팔면 갑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씨 정도의 자산가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고 믿은 피해자들은 흔쾌히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0억원대 자산가'의 외양은 가면에 불과했다.

하씨는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는커녕 대책 없이 돈을 더 빌리기만 했다. 하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는 세무사 남씨 이외에도 수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의 지인에 따르면 하씨 집에는 고위 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연예인도 드나들었다고 한다.

하씨에게 피해를 본 남성 대다수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씨는 지난해 가을 하씨를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29일 김포의 친척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기업인 불륜·연예인 사생활은 왜…

'靑 문건' 이번엔 민간사찰 논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에는 기업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 공적 업무와 무관한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에는 기업인의 불륜 등 사생활이나 세무조사 정보,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전해졌다.

이 중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의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민간업체의 비리 동향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건들도 있다. 모 주식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추정되는데,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다른 업체의 경우, 대표가 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과 비서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해당 업체를 상대로 경찰에서도 불법 금품거래 단서를 잡아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모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곳이어서, 업무와 무관한 부분까지 조사를 벌여 '민간인 사찰'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비리와 불륜 의혹 등 민간인 사생활을 다룬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좌영길·김의중 기자 jyg97@

"대한항공 좌석특혜 국토부가 먼저 요구"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6일 제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항공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해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좌석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 문제 삼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판사 등 사회 고위직에게도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뒤 봐주며 뒷돈'… 김재열 前 KB전무 기소

KB금융지주 임원이 협력업체 뒤를 봐주는 대신 변호사 비용이나 부인의 운전기사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갑질'을 일삼다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에 따르면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 등과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6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 검사에 착수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씨에게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요구하고 2012년 9월부터 2년여간 M사 소속 운전기사 2명을 쓰면서 임금 4000여만원을 조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김씨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 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신한금융, 1년만에 '2조 클럽' 재가입

〈순익〉

4대 금융지주 작년 실적 호조

순이익 모두 6조3873억… 전년보다 33.56% 늘어
"대출 이자이익 확대 전망…올해도 10% 증가 기대"



※단위: 억원, %
※출처: 에프엔가이드

2014년 4대 금융지주 실적 전망 ※지난해 11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합병

종목명	2014년 추정치			증감률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신한금융	12조4081	2조9311	2조2720	-1.43	11.13	10.32
KB금융	11조8951	2조0061	1조5449	-3.74	-1.03	22.26
하나금융	10조3928	1조4063	1조1342	-1.35	20.72	14.22
우리은행	9조3965	1조1863	1조4361	2.92	155.44	208.00

지난해 경영환경 악화에도 4대 금융지주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200%가 넘는 순익 증가율을 보였고 신한은행은 1년만에 2조클럽에 재가입했다.

7일 금융권 및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11월 우리금융지주 합병)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6조3873억원으로 전년대비 33.56%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적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4361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화 추진에 따른 계열사 매각대금과 환급받은 법인세가 계상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자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대손 사이클이 안정되고 있다"며 "향후 저원가성 수신 확대 등 핵심이익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10.32% 증가한 2조2720억원을 기록해 1년만에 '2조 클럽'에 재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대출성장, 개인고객 기반확대에 따른 저원가성예금 증가 등이 주효했다. 수익성이 높은 신용카드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타행대비 크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내분사태로 몸살을 앓은 KB금융 역시 지난해 1조544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22.26% 성장세다. 브랜드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원가성 예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순이자마진이 유지된 가운데 하반기부터 소호(SOHO) 대출이 회복된 것이 실적을 견인했다.

전배승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NIM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대출증가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판관비의 경우 카드 마케팅비용과 인건비 등의 이연비용 집행으로 전년대비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예상 순이익은 전년대비 14.22% 증가한 1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기업여신을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저가성 예금비중이 증가한 것이 실적을 방어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들이 높은 대출성장을 통해 올해도 안정적 이익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로 가면서 마진 안정과 대출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가 기대되고 실물경기 추가악화 가능성이 제한적 가운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대손비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정규직 전환 여전히 입장차
'하나+외환' 통합 파행거듭

'통합 후 1개월 내' 합의했지만 전환시기·급여·자동승진 이견
하나금융 "외환노조 요구 무리 상당한 비용… 경영에 악영향"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작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화도 중단된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매일 만나 통합협상대표단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측은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속 합의를 두고 갈등이 다시 증폭되면서 합의문 논의가 표류, 현재로선 1차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의 합병 조건으로 외환은행 내 무기계약직 34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나금융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두 은행의 통합 논의가 지체됐고, 합병 기일 또한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했다.

양측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 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노조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급여도 정식 직원인 6급 정규직군(대졸 군미필 신입직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경우 하나금융은 전환 첫해인 올해부터 하나은행 계약직 1400명, 외환은행 계약직 2000명 등 총 3400명의 추가급여분 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나금융 측은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여 체계는 현행과 같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밖에도 정규직이 된 계약직 직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자동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6급 대졸직원들과 동등하게 고과 우수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5급으로 자동 승진하면 하나금융은 매년 57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는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거듭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 경영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대구 참저축은행 오늘 매각 판가름

대구에 위치한 참저축은행의 매각 여부가 7일 결정된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참엔지니어링 한인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이날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참저축은행의 43.8% 지분 매각에 대한 매각주간사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지분율은 참엔지니어링이 보유한 43.8%와 창업자인 한인수 대표이사가 소유한 지분 36.1%다.

참저축은행은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참저축은행의 가치가 400억원 안팎이지만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자기자본이 늘어나 시가총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3년 영업이익 76억, 2014년 영업이익 126억 성과를 기록했고 순이익이 10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인수 회장이 참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모회사인 참엔지니어링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대규모 추징금 납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엘리 기자 ellee@

농협금융 '윤리경영' 실천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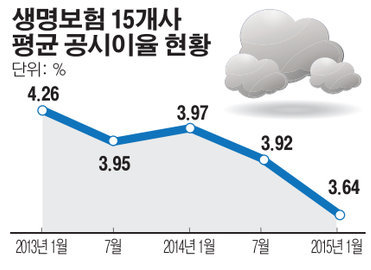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사진 왼쪽 다섯번 째)은 6일 서울 중구 통일로 농협은행 본관에서 그룹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임 회장과 경영진은 농협금융 임직원을 대표해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도약하자는 '2015년 윤리경영 실천'에 서약했다. 임종룡 회장은 "농협금융은 탄탄한 수익을 기반으로 농식품 금융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 공공사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고객과 약속한 IT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정보보호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

생보사 '공시이율' 3년 연속 내리막길

2013년 1월 4.26%→작년 3.97%→이달 3.64%
"저금리 추세… 역마진 줄이려면 어쩔수 없어"



생보사들이 공시이율을 계속 낮추고 있다. 공시이율이 낮아지는 것은 보험사가 나중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로 상반기 내 1.75%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고려하면 공시이율을 낮춰 역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5개 생보사 평균 공시이율은 2013년 1월 4.26%에서 2014년 1월 3.97%에 이어 이달 3.64%로 하락 추세다. 직전 3년간 0.62%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생보사는 이달 지난해 12월 대비 공시이율을 낮췄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3.65%에서 이달 3.37%로 0.28%포인트 인하했다. 공시이율 하락폭이 가장 컸을 분만 아니라 각 사중 가장 낮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금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저축보험에서도 같은기간 공시이율이 3.67%에서 3.60%로 0.1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우리아비바생명은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상품 공시이율이 같은 기간 3.65%에서 3.7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우리아비바생명 관계자는 "DGB 금융지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시이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유배당 상품의 경우 삼성생명, 농협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생보사가 공시이율을 0.05%포인트에서 0.1%포인트까지 낮췄다.

저축보험의 경우 삼성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을 제외한 생보사가 공시이율을 0.05%포인트에서 0.17%포인트 낮췄다.

강구귀 기자 kkk@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농협·삼성 우수…동부 꼴찌

보험상품의 약관이 가장 쉬운 곳은 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인 반면 동부생명은 가장 어려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아 실시한 '제8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보면 보험사 35곳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는 약 69.1점으로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이다.

보험개발원은 생보사 23곳에서는 현재 취급하는 암보험 상품을, 손보사 12곳에서는 작년 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회사별 1건씩 골라 분석했다.

보험사별로는 35개 보험사들 가운데 농협생명과 삼성생명 등 생보사 두 곳만 80점대를 득점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PCA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도 70점대로 생보사 가운데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반면 우리아비바생명과 동부생명의 득점이 저조했다. 특히 동부생명은 4차 평가보다 점수가 내려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대출 돌려막는' 금융취약자 껑충

대부업체 '타 대출 상환' 목적 7%
회사원 가장 많고 주부·학생 상당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에서 30%대의 고금리로 받은 신규 대출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학생이나 주부들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액 1조9640억원 중 1396억원이 '타 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이었다. 전체 신규대출의 7.1%가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의미다.

타 대출 상환 목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회사원(1089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영업자는 186억원, 학생·주부도 94억원에 달했다.

대부업체들이 학생이나 주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략 강도를 높이면서 이들에 대한 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체의 학생·주부 대상 신규 대출액은 1585억원으로 2011년 6월말 기준 1697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대포통장 명의자, 은행 계좌개설 금지

개인·법인 1년간 적용…휴면통장 현금인출 한도도 축소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법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해서는 현금인출 한도가 축소되며 대포통장 사기에 대비한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포통장 후속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지난 6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포통장은 사기범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타인 명의로 소유한 자유입출금통장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수차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2012년 3만7542개에서 2013년 3만7883개로 증가했으며 2014년의 경우 파밍과 대출사기까지 모두 포함한 대포통장은 8만5000개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포통장 근절 후속대책에는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 금지 △휴면통장의 대포통장화 방지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 축소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신고하지 않아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현금인출을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이상 거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 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 은행의 대포통장 수만 2억개에 달하는 등 대포통장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늦어도 2~3월 중에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BC카드 업계 첫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BC카드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내 카드사로는 처음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UNGC란 유엔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통해 세계화로 인해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한 전문기구다. BC카드는 이날 서초동 사옥에서 UNGC 가입증서를 전달받았다. 사진은 BC카드 서준희 사장(왼쪽)이 UNGC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으로부터 가입증서를 전달받는 모습. 사진제공 BC카드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두번째 이야기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DOOSAN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 장소

삼성 사장단 새해 첫 강연 주제는 '한국 사회'

송호근 교수 '한국 사회' 강의
수출 호조 속 경제상황 점검
내수 챙기고 국내투자 본격화
올해 위기극복 집중 논의



삼성그룹 최근 3년간 사장단 첫 강연 주제

일시	주제	강사	소속
2013년1월 9일	2013년 대한민국 어젠다	강원택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014년1월 8일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전재성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2015년1월 7일	**2015년 한국 사회 키워드**	**송호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이른 아침, 삼성전자 서초사옥 입구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들은 하나같이 한 손에 낡은 서류가방을 든 채 39층으로 향했다. 7일 을미년(乙未年) 새해 첫 수요 사장단 회의에 앞선 서초사옥 로비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삼성 사장단은 매주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40분 가량의 강연을 듣는다. 이날 새해 덕담을 서로 주고받은 30여명의 사장단은 첫 강연으로 서울대 송호근 교수와 '2015년 한국 사회 키워드'를 공유했다. 송 교수는 2010년 1월에도 '사회적 화두'를 주제로 수요 삼성 사장단에 강연한 바 있다.

삼성 사장단은 매년 첫 강연에서 외부 전문가의 눈을 빌려 대내외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거시적인 경영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첫 강연으로 '대한민국 아젠다'(강원택 서울대 교수)를 배웠고, 한국·북한·중국·일본 등의 관계가 요동친 2014년엔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전재성 서울대 교수)에 대해 고민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삼성이 올해 첫 강연 주제로 한국 사회를 선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 경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출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지만 내수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식 저성장 본격화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또한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정서도 문제다. 지난 한 해를 관통한 '갑(甲)의 횡포' 논란은 올해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며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핵심인 삼성전자 등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내수가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삼성은 작년 12월 29일 미래전략실 및 핵심 계열사 사장단 40여명이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극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 사장단이 새해 우리 사회를 가장 먼저 들여다 본 것은 해외보다 국내에서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크게 느껴진 게 아니겠느냐"면서 "창조경제센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정서를 미리 파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장효진 기자 js62@

대한항공 5000억 유상증자

사상 최대 규모… 900% 달하는 부채비율 낮추는데 사용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9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6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리사주조합에 20%가 우선 배정된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 1416만4306주, 주당 예정 발행가격은 3만5300원이다. 최종 발행가액은 3월 9일 확정될 예정이며, 신주 상장은 4월 1일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발행 주식 숫자는 기존 5978만6232주에서 7395만538주로 증가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되는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 등 총 차입금 규모가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 부채비율은 2011년 연결기준 700%를 넘어섰다. 2012년 영업 호조에 부채비율이 소폭 줄었으나 2013년 실적 부진에 737%로 늘었고 작년에도 3분기 말 기준 809%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한진해운을 인수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상태는 더 악화했다. 한진해운 역시 최근 수년간의 실적 부진에 부채비율은 2011년 453%에서 작년 3분기 말 1255%로 급격하게 악화됐다.

이에 한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자금 사정 악화로 지난 2009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다. 2013년 말에는 대한항공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에쓰오일 주식과 노후 항공기, 부동산 등을 매각해 3조5000여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계획안도 내놓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자본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돼 부채 비율은 약 20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한편, 연간 약 200억원의 이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마트 "겨울옷 반값에 팔아요"



소한이후 영하권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면서 겨울의류 판매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마트는 8일부터 14일까지 자체 의류 브랜드 데이즈가 입점한 전국 점포에서 경량 다운점퍼를 3만9900원에 판매하는 등 인기상품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선보인다. 6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데이즈 겨울철 의류를 입어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현대오일뱅크, 獨 카본블랙과 합작투자

상반기 내 계약 체결 전망… 연 매출 3000억 기대

현대오일뱅크가 올해 상반기 안에 독일계 카본블랙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독일계 카본블랙 업체인 A사와 상반기 내로 합작사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JVA)를 체결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중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A사와 법인 설립 및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대산공장 내에 카본블랙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카본블랙은 석탄에서 나오는 '콜타르'와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오일'등을 연소시켜 만든 탄소분말이다. 주로 타이어와 고무 등의 원료로 쓰인다.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카본블랙 시장도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A사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연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사는 세계 카본블랙 시장에서 7위권의 업체다. 오일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인 A사의 영업망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회사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설립하는 카본블랙 합작공장은 오는 2017년 상업가동이 목표다. 약 16만톤의 카본블랙을 생산할 계획이다. 오일뱅크가 카본블랙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OCI(27만톤)와 오리온 엔지니어드 카본즈 코리아(25만톤)에 이어 생산량 기준 국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매출액에서 정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90%대에서 6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만도, 中 서부 충칭에 車 부품 공장 짓는다



현지 7번째 공장… 올 말 착공
제동·조향·현가 3대부품 생산
3년내 매출 3조 계획 가시화



만도의 중국공장 현황

위치	생산품목	위치	생산품목
베이징	제동, 조향, 현가제품	톈진	부품용 주물
쑤저우	ABS, ESC	하얼빈	제동, 조향, 현가제품
닝보	제동제품, BCM	충칭(신규)	제동, 조향, 현가제품
선양	제동제품		

※출처: 만도

한라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 만도가 올해 말 중국의 7번째 생산기지를 충칭에 건설한다. 만도의 중국 신규공장 건설은 현대자동차가 허베이성과 충칭에 각각 중국 4·5공장을 짓는데 따른 것이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충칭공장은 올해 말 정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 쪽에는 공장을 새로 짓기 보다는 기존의 베이징공장에서 부품 공급을 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충칭공장에서는 제동(브레이크), 조향(스티어링), 현가(서스펜션) 등 자동차 3대 부품을 모두 생산한다. 충칭은 만도가 중국 서부지역에 세우는 첫 공장이다.

만도는 현대차 중국 4공장이 들어서는 허베이성 창저우 인근인 베이징과 쑤저우, 선양 등에 부품공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부 지역에는 공장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생산시설에서 현대차 허베이성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대차 허베이성공장이 2017년 연간생산 20만대 규모에서 30만대 규모로 증설되면 만도도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할 전망이다. 충칭공장이 준공되면 2018년 중국에서 매출 3조원을 올리겠다는 만도의 계획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만도는 2013년 총 매출액 5조6000억원의 30%인 1만8000억원(약 110억 위안)을 중국에서 거뒀다.

올해는 현지 신규 고객이 늘면서 중국 매출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만도는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이외에 상하이GM, 창안기차, 지리기차, 광저우기차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중순에는 정 회장이 직접 장성기차를 방문,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신규 고객사를 늘리고 있다.

내년 초 만도는 멕시코에도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멕시코 누에보레온주는 현재 기아차가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곳이다. 만도는 2017년 1월 기아차 멕시코 공장의 가동과 함께 전장부품을 본격 납품하게 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단통법 시행 100일… 중저가 요금제 ↑ 출고가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늘고, 단말기 출고가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비중은 줄고, 기기변경 및 알뜰폰 가입자 수는 늘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폰 시장 변화에 대한 통계를 6일 발표했다. 비교시점은 올 1월초부터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말까지다.

먼저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에서 14.8%로 줄어든 반면, 중저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66.1%에서 85.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소비자가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이 기존 4만5000원대에서 3만9000원 대 이하로 약 6448원(14.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37.6%에서 11.3%로 크게 낮아졌다.

박성제 기자 psj@

네이버, 의사결정 3단계→2단계로

본부제 폐지… '빠른 실행력' 강화

네이버가 급변하는 글로벌·모바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빠른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팀 제(制)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본부제를 폐지해 의사 결정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센터·그룹 / 실·Lab'의 2단계로 축소했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는 앞으로 개별 '센터'와 독립 조직으로 운영돼 온 '셀(Cell)' 등 실무 단위의 조직들에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센터', '셀' 등 실무 단위의 서비스 조직들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 목표 의식이 분명한 실무 중심의 우수 인재들이 서비스 혁신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본부제 폐지로 한성숙 이사는 서비스 총괄, 송창현 네이버 랩 연구소장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게 됐다.

아울러 네이버는 지난 해 8월부터 시범 운영돼 온 '책임 근무제'를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책임 근무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할당된 근무시간을 없애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의사 결정 속도, 근무 만족도 등 다방면에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한 후 정식 시행을 결정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디아지오, 관세청 소송
법원 중재 6년만에 합의

稅 40~50% 감면… 3000억 납부

6년여 간을 끌어온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세금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세금의 40~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세금 분쟁이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중재안의 핵심은 과세 처분이 내려진 5000억원 중 법원 중재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최대 3000억원 가량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이 양보하는 내용이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 분쟁의 시작은 2009년이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2012년 사이 해외에서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며 5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이같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올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최종 불발됐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에 나서면서 지난해 8월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변호인 측에 행정 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했다.

사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디아지오의 수용 여부는 전망하기 힘들었다. 세금 규모가 지난해 매출 3665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액수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아지오코리아가 행정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향후 재판에서의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고 더 이상의 재판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철규 기자 yoonck@

SKB 'B쇼핑' 론칭
커머스 시장 진출

SK브로드밴드가 T커머스(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채널인 'B쇼핑'을 6일 론칭하면서 커머스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B쇼핑은 KT 올레tv의 채널 40번을 통해 서비스되며, 패션·잡화·미용·식품·생활·주방·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또 B tv 모바일의 실시간 채널 및 모바일 웹(m.bshopping.co.kr)에서도 B쇼핑 시청과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B쇼핑은 데이터홈쇼핑 방송으로 화면의 51%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상품 주문과 결제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B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8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직거래우리 농산물 등 소상공인 제품도 10% 이상 편성할 방침이다.

박성제 기자 psj@

던힐 신제품 13일부터 '4700원'

담배 던힐 등을 판매하고 있는 브리티쉬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가 13일 던힐 6mg 등을 새단장해 출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다.

BAT코리아는 '던힐 6MG', '던힐 3MG', '던힐 1MG', 그리고 '던힐 프로스트 1MG' 총 4종을 향후 몇 주간 4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 갑당 4700원에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기존 던힐 브랜드 4종은 재고 소진 때까지 2700원에 판매된다.

BAT코리아는 6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던힐' 등 자사 제품의 구체적인 인상안을 신고했다. 인상폭은 지난해말 가격을 올린 KT&G나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비슷한 2000원선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격인상 신고 준비가 모두 끝나 오늘 오후 신고를 마쳤다"며 "인상폭은 먼저 가격을 올린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비자 인지를 위해 한 달 가량 할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호텔산업 3년 연속 '부동의 1위'… 기업별 1~4위 휩쓸어

NCSI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 평가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호텔산업이 1998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인 81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이 64점을 기록하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NCSI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지표다. 이에 NCSI가 높다는 것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고객중심 경영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NCSI는 국내 71개 산업, 305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비내구재 제조업 NCSI 점수 상승 주도 = 2013년 대비 NCSI 점수가 상승한 산업은 총 71개 산업 가운데 32개 산업으로 단연 비내구재 제조업에 포함된 산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신규 편입된 아웃도어의류를 제외한 비내구재 제조업에 포함된 9개 모든 산업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향상됐고, 향상 폭도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생산성본부는 비내구재 제조업에서 고객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고객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산업별로 남성정장 산업의 고객만족도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 고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4점(5.5%)이나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인 77점을 기록했다. 쓰레기 수거는 각 시·도별 자치구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 노력에 2013년 68점에서 2014년 71점을 얻어 3점(4.4%) 상승했다. 세탁기는 프리미엄 전략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제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완화돼 2013년 대비 3점(4.2%) 상승했다. 소주는 도수를 낮추는 등 품질의 변화가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키면서 2013년 대비 3점(4.2%) 올랐다.



서울신라호텔은 2013년 객실, 야외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라운지를 리모델링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그제큐티브라운지 내부 모습. 사진제공 호텔신라

비내구 제조업 점수상승 주도
"패션도 전략" 남성정장 4점 ↑
소형차·영화관 등 16개 산업 ↓
올해 가치소비·옴니채널 주목

반면 2013년보다 1개 적은 16개 산업(22.5%)의 점수가 하락했고 특히 소형승용차, 영화관, 대형서점, 전력공급, 국립대학교 부문의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소형 승용차는 2011년 이후 뚜렷한 신차나 페이스 리프트의 부재로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해 2013년 대비 2점(2.7%) 하락했다. 영화관은 IPTV 및 디지털 케이블의 영화 VOD 서비스 시장 성장과 특수 상영관의 대중화로 2013년 대비 2점(2.7%) 떨어졌다.

◇호텔산업 부동의 1위 = 호텔산업은 2012년에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뒤 2013년 80점으로 1위,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점 상승한 81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 병원이 79점, 남성정장이 77점으로 평가됐다.

호텔산업은 2012년부터 많은 호텔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리모델링으로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리모델링 완료 후 향상된 객실 및 시설 수준은 고객인지 품질 향상을 견인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생산성본부는 "다만 고객인지 품질이 2점이나 올랐음에도 고객만족도 상승은 1점에 그쳤는데,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원화 강세 기조도 이어져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한국을 방문한 고객들의 숙박비 지출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가치소비·옴니채널 대비하라 = 생산성본부는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2015년에도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가치소비'와 '옴니채널'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가치소비는 주목받고 있는 구매 횟수와 비용을 늘리는 대신 하나의 소비에도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생산성본부는 "기업들이 신규 수요보다는 재구매·교체 수요에 집중해야 하고, 다양한 할인이나 제휴 이벤트 등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성본부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조화롭게 혼합하는 믹스드(Mixed) 채널 전략과 모바일 플랫폼 최적화 노력이 산업 전반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프로비스(Provice)' 역량이 향후 성패를 가르는 핵심 인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은 가격, 높은 품질의 수입상품을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 높아진 고객 눈높이를 충족할 품질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2014년 NCSI 순위 및 점수 ※순위는 NCSI 점수의 소수점을 고려한 결과

순위	기업(Company)	산업(Industry)	NCSI Score
1	호텔신라	호텔	84
2	롯데호텔	호텔	83
3	JW메리어트호텔서울	호텔	83
4	조선호텔	호텔	82
5	세브란스병원	병원	81
6	삼성서울병원	병원	80
7	인터컨티넨탈호텔	호텔	80
8	서울성모병원	병원	80
9	성균관대학교	사립대학교	80
10	서울아산병원	병원	79
11	더플라자	호텔	79
12	삼성물산	아파트	79
13	르네상스서울호텔	호텔	79
14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79
1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	78
16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78
17	경희의료원	병원	78
18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8
19	리츠칼튼호텔	호텔	78
20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77
21	고려대학교	사립대학교	77
22	고대안암병원	병원	77
23	Korean Air	국제항공	77
24	제일모직	남성정장	77
25	전남대학교병원	병원	76
26	롯데면세점	면세점	76
27	코오롱인더스트리	남성정장	76
28	전북대학교병원	병원	76
29	삼성전자	TV	76
30	LF	남성정장	76
31	아시아나항공	국내항공	76
32	현대자동차	대형승용차	76
33	한국야쿠르트	우유발효유	76
34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6
35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76
36	샤넬	여성용화장품	76
37	롯데백화점	백화점	76
38	오비맥주	맥주	76
39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76
40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76
41	LG전자	에어컨	76
42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	76
43	Asiana Airlines	국제항공	76
44	롯데칠성음료	음료	76
45	기아자동차	대형승용차	75
46	LG전자	세탁기	75
47	동국대학교	사립대학교	75
48	삼성전자	에어컨	75
49	삼성전자	세탁기	75
50	LG전자	TV	75
51	숙명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5
52	코카콜라음료	음료	75
53	디아지오	맥주	75
54	교보문고	대형서점	75
55	하이트진로	맥주	75
56	KFC	패스트푸드	75
57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75
58	서울우유	우유발효유	75
59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75
60	신라면세점	면세점	75
61	LG생활건강	여성용화장품	75
62	삼성전자	태블릿PC	75
63	아모레퍼시픽	여성용화장품	75
64	대한항공	국내항공	75
65	삼성전자	개인용컴퓨터	75
66	동아오츠카	음료	75
67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5
68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75
69	해태음료	음료	75
70	쌍용자동차	대형승용차	75
71	하나투어	여행사	75
72	LG전자	김치냉장고	75
73	부산대학교병원	병원	75
74	신한은행	은행	75
75	삼성전자	냉장고	75
76	현대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5
77	소니	TV	75
78	네이버	검색포털	75
79	하이네켄	맥주	75
80	애슐리	패밀리레스토랑	75
81	쿠쿠전자	전기밥솥	75
82	현대자동차	중형승용차	75
83	영원아웃도어 (노스페이스/영원/에이글)	아웃도어의류	75
84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75
85	하이트진로	소주	75
86	LG전자	냉장고	75
87	빙그레	우유발효유	75
88	르노삼성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4
89	파파이스	패스트푸드	74
90	LG전자	개인용컴퓨터	74
91	KT&G	담배	74
92	삼성카드	신용카드	74
93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승용차	74
94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4
95	삼성증권	증권 위탁매매	74
96	케이투코리아(K2/아이더)	아웃도어의류	74
97	KB국민은행	은행	74
98	현대자동차	RV	74
99	애플	태블릿PC	74
100	밀러브루잉	맥주	74
101	우정사업본부	우편	74
102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웃도어의류	74
103	VIPS	패밀리레스토랑	74
104	리홈쿠첸	전기밥솥	74
105	금강제화	남성정장구두	74
106	쿠팡	소셜커머스	74
107	롯데아사히주류	맥주	74
108	기아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4
109	대유위니아	에어컨	74
110	블랙야크	아웃도어의류	74
111	롯데마트	대형마트	74
112	롯데주류	소주	74
113	농심	라면	74
114	월풀	냉장고	74
115	CJ오쇼핑	TV홈쇼핑	74
116	모두투어	여행사	74
117	남양유업	우유발효유	74
118	현대백화점	백화점	74
119	이마트	대형마트	74
120	삼성전자	스마트폰	74
121	삼성생명	생명보험	74
122	G마켓	오픈마켓	74
123	우리은행	은행	74
124	네파	아웃도어의류	74
125	T.G.I.프라이데이스	패밀리레스토랑	74
126	베니건스	패밀리레스토랑	74
127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패밀리레스토랑	74
128	현대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4
129	GE	냉장고	74
130	CJmall	인터넷쇼핑몰	74
131	Japan Airlines	국제항공	74
132	코리아나화장품	여성용화장품	74
133	매일유업	우유발효유	74
134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4
135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74
136	Singapore Airlines	국제항공	74
137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4
138	비씨카드	신용카드	74
139	경희대학교	사립대학교	74
140	KT	유선전화	74
141	코웨이	정수기	74
142	삼성화재	손해보험	74
143	기아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4
144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74
145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73
146	홈플러스	대형마트	73
147	현대카드	신용카드	73
148	한국화장품	여성용화장품	73
149	하나은행	은행	73
150	탠디	남성정장구두	73
151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3
152	코스트코홀세일	대형마트	73
153	LG전자	스마트폰	73
154	청호나이스	정수기	73
155	르노삼성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3
156	Thai Airways	국제항공	73
157	기아자동차	RV	73
158	버거킹	패스트푸드	73
159	애플	스마트폰	73
160	외환은행	은행	73
161	KT	초고속인터넷	73
162	엘칸토	남성정장구두	73
163	GS칼텍스	주유소	73
164	한국씨티은행	은행	73
165	BAT 코리아	담배	73
166	롯데홈쇼핑	TV홈쇼핑	73
167	현대홈쇼핑	TV홈쇼핑	73
168	Hmall	인터넷쇼핑몰	73
169	GS홈쇼핑	TV홈쇼핑	73
170	EFC	남성정장구두	73
171	기아자동차	중형승용차	73
172	동부화재	손해보험	73
173	JTI 코리아	담배	73
174	신한카드	신용카드	73
175	SK에너지	주유소	73
176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3
177	한국지엠	준대형승용차	73
178	CJ CGV	영화관	73
179	GS SHOP	인터넷쇼핑몰	73
180	티켓몬스터	소셜커머스	73
181	전력공급	전력공급	73
182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73
183	옥션	오픈마켓	73
184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73
185	쌍용자동차	RV	73
186	우정사업본부	택배	73
187	다음카카오	검색포털	73
188	11번가	오픈마켓	73
189	LIG손해보험	손해보험	73
190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3
191	한국 필립모리스	담배	73
192	삼성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3
193	현대해상	손해보험	73
194	충남대학교병원	병원	73
195	동부대우전자	세탁기	73
196	위메프	소셜커머스	73
197	Cathay Pacific Airways	국제항공	73
198	한국지엠	경형승용차	73
199	KB국민카드	신용카드	73
200	SK브로드밴드	IPTV	73
201	오뚜기	라면	73
202	삼양식품	라면	73
203	KT	국제전화	73
204	대림산업	아파트	73
205	캐리어	에어컨	73
206	팔도	라면	73
207	구글코리아	검색포털	73
208	HP	개인용컴퓨터	73
209	웅진식품	음료	73
210	SK텔링크	국제전화	73
211	한화생명	생명보험	73
212	S-Oil	주유소	72
213	쿠쿠전자	정수기	72
21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행	72
215	한국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2
216	대우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2
217	홈앤쇼핑	TV홈쇼핑	72
218	롯데시네마	영화관	72
219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	72
220	LG U+	IPTV	72
221	NS홈쇼핑	TV홈쇼핑	72
222	소다	남성정장구두	72
223	미래에셋증권	증권 위탁매매	72
224	동양매직	정수기	72
225	상수도	상수도	72
226	우리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2
227	교보생명	생명보험	72
228	뚜레쥬르	베이커리	72
229	ING생명	생명보험	72
230	세무행정	세무행정	72
231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72
232	CJ대한통운	택배	72
233	LG U+	초고속인터넷	72
234	한진	택배	72
235	반디앤루니스	대형서점	72
236	SK커뮤니케이션즈	검색포털	72
237	미래에셋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2
238	영풍문고	대형서점	72
239	기아자동차	소형승용차	72
240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72
241	TG삼보컴퓨터	개인용컴퓨터	72
242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72
243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72
244	기아자동차	경형승용차	72
245	KT	이동전화서비스	72
246	KT	IPTV	72
247	대우증권	증권 위탁매매	72
248	한국지엠	준중형승용차	72
249	롯데닷컴	인터넷쇼핑몰	72
250	현대로지스틱스	택배	72
251	SK브로드밴드	유선전화	72
252	KT	인터넷전화	72
253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72
254	한국철도공사	철도	72
255	LG U+	이동전화서비스	72
256	키움증권	증권 위탁매매	71
257	LG U+	인터넷전화	71
258	신한생명	생명보험	71
259	메가박스	영화관	71
260	팬택	스마트폰	71
261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71
262	LG U+	국제전화	71
263	현대자동차	소형승용차	71
264	한국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1
265	한국지엠	소형승용차	71
266	GS건설	아파트	71
267	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	71
268	동부대우전자	냉장고	71
269	홍익대학교	사립대학교	71
270	마산대학교	전문대학	70
271	현대건설	아파트	70
272	경찰행정	경찰행정	70
273	대우건설	아파트	70
274	서강대학교	사립대학교	70
275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70
276	한양대학교	사립대학교	70
277	중앙대학교	사립대학교	69
278	연세대학교	사립대학교	69
279	충남대학교	국립대학교	69
280	롯데건설	아파트	69
281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	69
282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69
283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69
284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	68
285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	67
286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67
287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66
288	건국대학교	사립대학교	65
289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대학교	64
290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	64
291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64
292	인하대학교	사립대학교	63
293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문대학	63
294	전남대학교	국립대학교	62
295	신구대학교	전문대학	61
296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61
297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60
298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60
299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59
300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	57
301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57
302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53
303	대덕대학교	전문대학	53
304	청암대학교	전문대학	52
305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	51

차별화된 서비스가 평가 좌우

호텔신라, 높은 고객충성도… 84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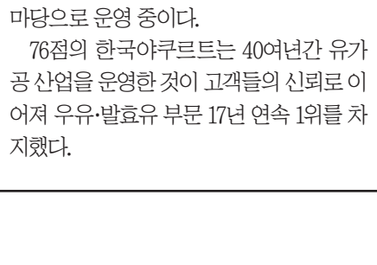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1위
한국야쿠르트 '발효유' 신뢰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은 차별화된 고객중심 경영이 빛을 발해 고객만족도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최고점인 84점을 받은 호텔신라는 '2014 국가고객만족도(NCSI)'의 전 부문 통합 1위로 선정됐다. 서울신라호텔은 이번 평가에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고객 충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3년 객실, 야외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라운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업계 최초로 도입한 '도어 투 도어 에스코트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고객중심 경영을 펼쳤다.

서울신라호텔은 고객 의견의 실시간 공유, 고객 불만 발생시 전담 인력을 통한 사후관리 등 고객만족 CS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객접점 부서를 통해 프로세스 및 스탠더드 공유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도록 서비스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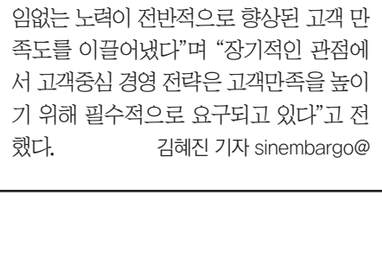
79점을 받은 삼성물산은 아파트건설업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삼성물산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업계 최초로 입주관리 서비스 브랜드인 '래미안 헤스티아'를 도입했다. 고객 접점 직원과 래미안 헤스티아 라운지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찾아내 다양한 연차별·연중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래미안은 헤스티아밸류서비스 나눔마당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게와 협약식을 맺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사후 서비스를 위해 공동주택 AS 시스템 모바일(스마트 폰)에 기반을 둔 하자보수 업무 체제를 구축한 것도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주거 서비스 브랜드 '헤스티아 밸류'는 청소를 비롯해 문화강좌, 교육 특강, 사회공헌 활동을 접목해 서비스 개념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 배움, 나눔, 도움 마당으로 운영 중이다.

76점의 한국야쿠르트는 40여년간 유가공 산업을 운영한 것이 고객들의 신뢰로 이어져 우유·발효유 부문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야쿠르트는 40여년 이상 발효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평택 다목적 프로바이오틱스 공장 내부. 사진제공 한국야쿠르트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개념 탑승형 전동카트 코코(COCO)를 현장에 지원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선한 제품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01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를 열고 전국 홀몸노인과 복지단체 등에 지금까지 135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최상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중심 경영 전략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건설사 위기돌파 '재무통' CEO 뜬다

불황에 조직안정 능력 부각
현대산업개발 김재식 대표
GS 임병용·포스코 황태현
CFO 출신 최고경영자 대세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의 최고경영자(CEO)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은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재식 CFO 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영업본부장, 법무감사실장 등을 거쳐 2012년 현대산업개발 CFO에 오른 재무통이다. 지난해 3월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9개월 만에 CEO로 고속 승진했다.

특히 회사 실적이 적자로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각자 대표로 선임된 후 조기 흑자전환을 이끌어내며 위기관리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59억76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 늘어난 1조1281억원으로 집계됐고 당기순이익은 277억12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2013년 어닝 쇼크로 업계에 충격을 안겼던 GS건설 역시 일찌감치 당시 CFO 임병용 경영지원총괄 사장을 새로운 CEO로 선임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맡겼다.

당시 임 대표이사는 GS그룹 지주사인 GS의 경영지원팀장(부사장)에서 GS건설 CFO로 영입된 뒤 6개월여 만에 CEO 자리에 올랐다. 그만큼 회사 사정이 급박했다는 방증이다.

임 대표이사는 1991년 LG구조조정본부에 입사한 후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건설업계의 대표적 재무통이다.

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GS건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167억원으로 전년동기 759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2013년 8272억원에 달했던 영업적자 역시 흑자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에 부임한 황태현 사장 역시 1993년 포스코에 입사해 재무담당 상무와 전무이사를 거친 재무통이다. 2004년 포스코건설로 건너와 2009년까지 CFO를 역임했다. 포스코건설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IPO(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만큼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황 사장은 최근 정기인사에서도 유임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2013년 말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최치훈 사장 역시 조지워싱턴대 MBA를 수료한 뒤 제너럴일렉트릭(GE)과 삼성전자, 삼성SDI를 거치며 영업과 재무부문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이후 삼성물산은 9년 만에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 CFO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업계가 장기적 불황에 빠지며 위기관리와 함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장을 위해 IPO를 준비 중인 건설사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건설사 관계자는 "오랜 불황과 함께 기업의 위기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CFO가 선호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조건적 효율성보다는 적절한 수주를 이룰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감정가(만원)	최저입찰가(만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노원구 월계동 781 청백 403동 7층 706호	85	313,000,000	250,400,000	80%	1월26일	북부5	2014-3894
아파트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4-1 종암SK 104동 9층 904호	85	360,000,000	288,000,000	80%	1월26일	북부5	2014-7391
아파트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18 ,-1 태영 105동 3층 304호	59	230,000,000	184,000,000	80%	1월26일	북부5	2014-17503
아파트	서울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 2동 2층 201호	85	251,000,000	200,800,000	80%	1월26일	북부6	2014-9045
아파트	서울 강북구 번동 136 번동솔그린 102동 1층 102호	60	234,000,000	187,200,000	80%	1월26일	북부6	2014-20769
아파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3 동신 201동 8층 802호	48	123,000,000	86,100,000	70%	1월22일	수원8	2013-59455
아파트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4-2 화성 102동 2층 203호	128	280,000,000	196,000,000	70%	1월22일	안산3	2014-8250
아파트	경기 평택시 용이동 471-1 평택용이푸르지오 101동 16층 1602호	124	361,000,000	252,700,000	70%	1월26일	평택4	2014-10647
아파트	인천 서구 당하동 1027-15 ,-16 신안실크벨리 513동 8층 801호	60	185,000,000	129,500,000	70%	1월22일	인천16	2014-58421
아파트	인천 부평구 산곡동 274 경남 208동 2층 203호	126	280,000,000	196,000,000	70%	1월22일	인천16	2014-47643

※자료제공: 지지옥션 www.ggi.co.kr



◇서울 노원구 월계동 781 청백 = 403동 706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8년 8월 준공한 4개동 520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84.54㎡, 방 3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월계역이 단지에서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초안산,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등이 인근에 있다. 단지 주변으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인덕대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염광고등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염광중학교, 신창중학교, 월계중학교, 월계초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3억13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5040만원이다. 입찰은 1월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 2014-3894.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18 ,-1 태영 = 105동 3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11월 준공한 6개동 514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7층 건물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59.42㎡, 방 3개 욕실 1개에 복도식 구조다. 숭덕초등학교 북동측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아파트 단지, 학교, 단독주택, 소규모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주거지역이다. 인근에 성가소비녀회 안나의집,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계성고등학교, 숭덕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2억3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1억8400만원이다. 입찰은 1월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 2014-17503.

구성헌 기자 carlove@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장
"올해 해외건설 진출 50년 누적수주 7천억달러 달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새해를 맞아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5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식 국토교통부 차관, 정성호 의원, 김태원 의원, 이윤석 의원, 김희국 의원, 이충재 행정중심복합신도시건설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삼규 회장은 신년사에서"우리 건설업은 올해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을 맞아 해외건설 수주 누계 70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올해도 '자이 돌풍'… 1만8000가구 공급

청라·미사강변·한강센트럴자이
서울6곳 등 전국 18개 프로젝트
상반기 9000여가구 집중 분양

올해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전국에 총 1만7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GS건설은 지난해 총 1만4350가구를 분양하며 좋은 성적을 낸 여세를 몰아 올해 3000여 가구 늘린 총 1만7889가구를 분양하며 '자이 돌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작년 총 11개 프로젝트를 공급한 GS건설은 올해 지역별로 서울에서 6개, 인천, 경기 9개, 지방에서 3개 등 총 18개 프로젝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 1만2837가구의 72%인 9000여 가구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먼저 2월 인천 청라지구에 저층 아파트 단지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646가구 규모로 '자이'가 첫선을 보이는 저층 아파트 단지인 만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3월에는 작년 성공적으로 분양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와 '한강센트럴자이'의 2차 사업이 공급된다.

아울러 GS건설이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인 정비사업은 서울 지역에 하왕1-5, 염리2, 답십리14구역 등 일반분양 1055가구와 부산 우동6구역에 490가구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인 반포한양아파트도 하반기에 공급한다.

박태진 기자 tjpippo@

GS건설 2015년 공급 계획

*2015년 공급물량은 18개 Proj. 총 17,889세대임. (일반 12,837, 조합 2,471, 임대 2,581)

지역	단지명	분양월	전용면적(㎡)	2015년 공급 가구 총	일반
경북	구미 문성 2지구	2월	74~100	1,138	1,138
인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76, 84	646	646
경기	미사강변리버뷰자이		91~132	555	555
경기	오산 부산동	3월	59~101	2,040	2,040
서울	신금호파크자이		59~114	1,156	84
경기	한강센트럴자이 2차	4월	84,100	598	598
경기	평택 동삭2지구 1차	4월	59~109	1,845	1,845
서울	하왕1-5구역		51~84	713	292
서울	은평A11주상복합	5월	84	372	372
서울	염리2		59~119	927	413
경기	화성 반월	6월	59~84	468	
부산	부산 우동6		59~84	813	490



"올 주택매매가 2.3%·전세가 2.2%↑"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전망'
'주택3법' 통과 거래량 8% 뛸것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6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대비 2.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아파트매매가격은 앞으로 10년간 연 평균 2.9~3.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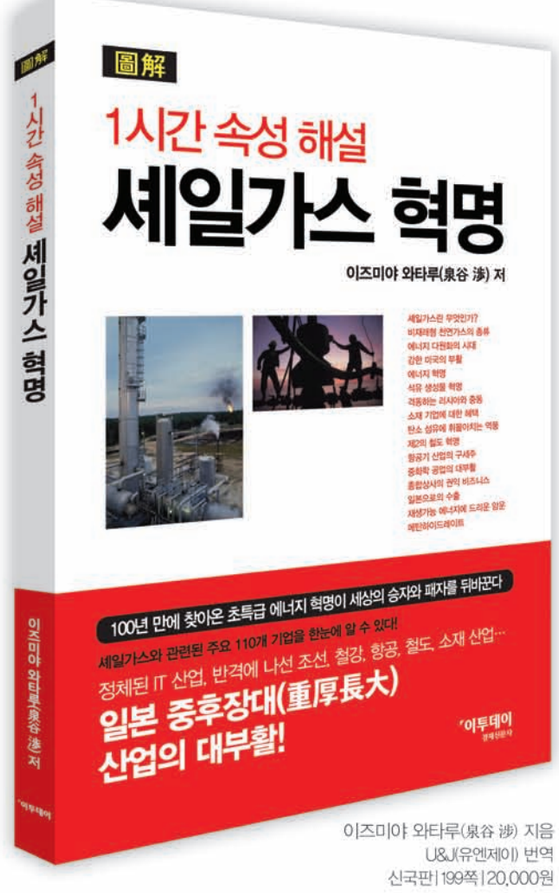
또한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 3법 통과에 따른 주택시장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주택거래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임대시장은 저금리 기조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2.2%, 수도권 전세가격은 3.4%, 지방은 2.2% 상승이 점쳐진다.

토지시장은 대체로 주택시장의 회복과 경기 호전으로 지난해(잠정치 1.94%)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예상했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올해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와 재건축 투자 수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주완료 등의 재료를 바탕으로 매매가격과 거래량 모두 전국적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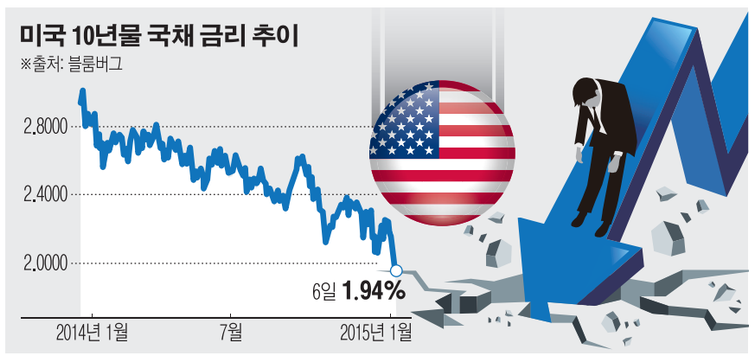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새해 벽두부터 요동치는 세계경제

'逆오일쇼크' 글로벌 자금 대이동

유가 급락에 美 S&P500지수 5거래일 연속 하락세
증시 조정론 확산… 주요국 국채금리 사상 최저치로



글로벌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요동치고 있다. 유가 급락으로 '역(逆)오일쇼크' 공포가 퍼지고 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는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6일(현지시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3개월 만에 최장기 약세를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까지 랠리를 펼쳤던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짐 폴슨 웰스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하락이 멈추기 전까지는 증시 역시 출렁일 것"이라면서 "유가가 바닥을 치고, 달러가 고점을 찍으면 현재의 '미니 패닉' 역시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9bp(1bp=0.01%P) 하락한 1.94%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찍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013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장기물인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2.5%로 떨어지면서,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

경제 비관론이 득세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금리 하락의 배경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연방기금선물을 통해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60%로 봤다. 전일과 비교하면 9월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3%포인트 낮아졌다.

주요국 국채 금리 역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3%대가 무너졌고, 호주 금리는 2.7%가 붕괴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벨기에, 핀란드, 영국 등의 국채 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의 글로벌브로드마켓국채플러스인덱스는 전일 1.28%까지 떨어지면서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시장이 출렁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패트릭 리글랜드 소시에테제네랄 리서치 헤드는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금융시장에서 살고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일 300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강세장의 종료와 약세장 진입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다우지수가 연초 2거래일 동안 상승하면, 남은 1년 동안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나타냈지만 주요 변수로 인해 올해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우지수는 6일에도 장중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Grexit)'가 현실화하고, 유가의 급락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불안은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마켓워치는 예상했다. 실제로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는 변동성지수(VIX)는 같은 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20%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채권왕' 빌 그로스 야누스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올해 대다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좋은 시절은 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주요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믿고 있지 않다고 그로스는 강조했다.

아울러 강세장의 종료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장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터닝포인트를 맞을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고 설명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시리자는 "그렉시트 없다"지만…

〈급진좌파연합〉

그리스 조기총선 승리 유력… 시장혼란 계속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지난달 조기 대통령 선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실패했고 이에 오는 25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시리자가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그렉시트 우려가 재고조됐다.

이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당수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유로존의 붕괴 대신 안정을 지킬 것"이라며 "사마라스 총리만 시리자의 승리를 그렉시트라는 '테러리스트 시나리오'와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선택지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마라스 총리는 지난 3일 연설에서 "시리자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물론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시리자는 유로존에 그리스 일부 부채 삭감 요구, 근로자 임금 인상과 공무원 일자리 확대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일개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그렉시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당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3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아테네/AP뉴시스

이날 시리자 성명에도 긴축 후퇴 공언이 결국 그렉시트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시리자가 총선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리스증시 ASE지수가 5.6% 급락해 2012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그리스 국채 금리는 400bp(bp=0.01%P)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가하락 역풍 맞나 美 철강업계 칼바람

U.S.스틸, 오하이오·텍사스주 공장 대상 구조조정
저유가 여파 미국 산업계 첫 대량해고… 확산 우려

국제유가 급락세가 미국 철강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철강회사 U.S.스틸은 오하이오와 텍사스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75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인한 미국 산업계에서 첫 대량해고라고 WSJ는 지적했다. 해고 조치는 오는 3월부터 시작돼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U.S.스틸이 운영 중단을 선언한 해당 공장은 원유와 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철강파이프와 튜브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정용 강관(OCTG) 등 시추 드릴에 쓰이는 철강제품에 대한 에너지 기업들의 수요도 크게 줄었다.

회사의 톰 맥더모트 대표는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회사가 최근 원유 업계 침체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사업을 잃었다"면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생산적인 한 해 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갑자기 안 좋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실적 부진과 대량 해고사태가 U.S.스틸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기업들이 오하이오와 텍사스에 수백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부활과 셰일붐으로 철강 수요가 커질 것을 대비해 기업들이 철강산업에 베팅을 늘린 것이다. 특히 철강 기업들이 미국 내 셰일붐에 기대를 걸고 지난 몇 년간 OCTG 생산시설을 늘린 것이 오히려 미국 철강업계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철강 수입이 35% 늘어나는 등 초과공급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대륙 덮친 '북극 한파'


6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레밍턴 부근의 고속도로에 망가진 트럭이 서 있다. 전날 밤 이 지역을 휩쓴 겨울폭풍으로 인해 얼어붙은 고속도로에서 연쇄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 북극발 한파가 불어닥치며 일부 지역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렸고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레밍턴/AP뉴시스

리치머니

올해 꼭 필요한 금융습관 "지출성향부터 파악하라"

피델리티, 예산짜기·카드빚 상환·은퇴 후 세금혜택 등


블룸버그

새해가 밝으면서 소비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자산운용 전문업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는 4일(현지시간) 올해 꼭 갖춰야 할 네 가지 습관을 소개했다.

먼저 피델리티는 자신의 지출성향을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지출습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돈 역시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트닷컴'처럼 개인 경비사용 내역을 파악해주는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안했다. 한 달 동안의 소비내역을 파악하면서 지출을 줄여야 할 항목, 저축을 더 해야 할 항목 등을 파악하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예산을 짜고, 1년 동안 그 계획을 지키는 것 역시 바른 개인금융 습관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에 이 같은 예산을 수립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면, 긴급자금을 구축할 것도 권유했다. 하루에 50센트씩 1년 동안 저금한다면 긴급자금 목표금액인 500달러의 36% 이상은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피델리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내역을 검토하지 않는데, 이 같은 습관은 자산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델리티는 카드 발급사에 저금리를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그 동안 카드사용금액을 제때 상환해왔다면 카드 발급사 측에서도 저금리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 돌려막기'를 계획한다면 수수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수의 카드 발급사들이 한시적으로 제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피델리티는 "카드 사용하는 유혹을 참아내야 하며, 카드사용금액을 제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피델리티는 50세 이상 은퇴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중장년층을 위한 '추가기여 플랜제도' 한도금액이 기존 5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높아진 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추가기여플랜제도란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는 추가액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글로벌 리포트

애플, 휘는 스마트폰 만든다

애플이 '진짜' 휘는 스마트 기기를 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이폰6플러스가 휘어지는 현상으로 곤욕을 치른 애플이 이번에는 '휘는 전자기기(flexible electronic device)'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이날 취득한 특허 '8,929,085'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등의 가단성 외부 부품과 유연한 배터리와 회로를 사용해 '휘는 기기'를 생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특허에는 이와 관련된 도면도 포함됐다.

이날 애플 주가는 나스닥에서 전일 대비 0.01% 오른 106.26달러로 강보합에 마감했다.

샤오미, 印 판매전략 전면 수정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인도시장을 공략하고자 기존에 구사하던 온라인 판매전략을 버리고 오프라인 판매에 나섰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회사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대형 스크린 스마트폰 '레드미 노트4G'를 9999루피(약 17만원)에 인도 최대 통신사 에어텔(Airtel)의 133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고사양 제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저가로 유통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기존의 전략을 깨고 인도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인도 시장 특성에 따른 결정이다.

샤오미는 지난해 7월 인도에 진출 현재까지 약 100만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이동통신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그러나 최근 샤오미는 인도시장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스웨덴 에릭슨이 '3G 기술' 등 특허 8가지 침해 혐의로 샤오미를 상대로 낸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존 베이너 美 하원의장 '3연임'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하원의장 3연임에 성공했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제114대 의회 개회일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베이너 의장을 재선출했다. 이에 베이너 의장은 앞으로 2년간 하원을 이끌게 됐다.

공화당은 애초 지난해 '11·4 중간선거' 압승 이후 베이너 의장을 재추대하기로했으나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 등을 중심으로 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어 고전했다.

루이 고머트 의원이 베이너 의장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테드 요호(플로리다),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 등이 잇따라 베이너 의장을 찍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투표에서도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의 25명 반란표에 전체 출석의원 408명 가운데 216표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는 등 고전했다. 특히 이날 나온 반란표는 현직 하원의장 연임 투표에서 가장 많은 것이라고 현지언론들은 분석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164표를 얻었다.

中, 이번엔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

에너지·교통 등 7개 분야에 2016년까지 10조 위안 투자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경기부양에 나선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2016년까지 10조 위안(약 1755조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특히 올해 7조 위안, 미국 달러화로 1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300개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도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이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HSBC홀딩스의 줄리아 왕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성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시장의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는 계속해서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인프라 투자는 석유와 가스파이프라인 건강 청정에너지 교통 광업 농업수리 등 7개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인완궈증권의 한쓰이 애널리스트는 "그 가운데 올해 철도 투자는 1조 10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내가 차세대 골프 여제"

장타보다 두뇌 플레이어 김효주 VS 대담한 플레이어 리디아 고

작년 KLPGA 4관왕 국내최강 VS 데뷔 첫해 3승… 기량 입증

'멘갑' 김효주냐, '천재소녀' 리디아 고냐



두 선수에 주목하라

스포츠 현장에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을 라이벌이라고 부른다. 올해는 주목받는 라이벌이 유난히 많다. 그들이 있어 스포츠가 더 즐겁다. 알고 보면 더욱더 흥미로운 스포츠 현장 라이벌을 차례로 소개한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더 뜨겁다.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 두 '골프 여제'에 대한 도전이 어느 해보다 거셀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선수는 김효주(20·롯데)와 리디아 고(18·캘러웨이골프)다.

김효주는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5승을 달성하며 4관왕에 오른 국내 최강자다.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LPGA투어 시드를 따낸 김효주는 올해 LPGA투어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다.

김효주는 장타보다 견고한 아이언샷과 쇼트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두뇌 플레이어다. 특히 '멘갑'이라 불릴 만큼 큰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올 시즌 LPGA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 LPGA투어 데뷔 첫해 3승을 달성하며 신인왕에 오른 '천재 소녀'다. 열여덟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담한 플레이를 펼치는 리디아 고는 LPGA투어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관심사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다. 김효주가 올해 LPGA투어에 본격적으로 데뷔하면서 1년 내내 두 사람의 맞대결이 LPGA 무대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박인비와 루이스로 양분되는 LPGA투어에 겁 없는 두 신예가 등장, 투어 판도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 4관왕과 세계를 놀라게 한 리디아 고의 진검승부는 예측 불허다.

첫 대결은 3월 5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HSBC 여자 챔피언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주는 2월 26일부터 나흘간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데뷔전을 치르지만 리디아 고는 같은 기간 뉴질랜드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리디아 고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김효주보다 1년 먼저 LPGA투어에서 적응했고, 데뷔 첫해 3승을 달성할 만큼 정상급 기량을 입증하며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여자골프랭킹 2위로 도약했다. 게다가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과 미국 투어를 병행할 예정이라 리디아 고의 압승이 예고된다. 그러나 김효주는 국내 투어 데뷔 2년 만에 4관왕에 올랐고, 2008년 신지애(26)가 기록한 단일 시즌 최다 상금(7억6518만4500원)을 뛰어넘으며 한국여자골프 새 역사를 작성했다. 특히 시즌 5승 중 3승이 메이저 대회일 만큼 탁월한 멘탈 테크닉도 지니고 있어 김효주와 리디아 고의 라이벌전은 올 한해 LPGA투어 흥행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김효주 vs 리디아고

김효주		리디아 고
20	나이	18
167㎝	신장	165㎝
KLPGA(5승), LPGA(1승)	지난해 우승(메이저)	LPGA(3승)
KLPGA 4관왕	수상 내역	LPGA 신인상
12억897만8590원 (1위)	획득상금 (순위)	208만9033달러(23억1900만원·3위) +150만 달러(16억6000만원)
70.26타(1위)	평균타수(순위)	70.08타(5위)
265.44야드(21위)	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	249.50야드(66위)



건강의 시작은 **편안함입니다.**

날마다 편하게 아연 보충용 제품

효모아연 + 복합효소(부원료)

건조효모에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한 제품으로
부원료로 복합효소 300 mg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편하게, 온가족을 위해 선택하세요.



※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보세요.

비타민하우스 the Vitamin House 소비자상담실 : 1588-8529 www.vitamin-house.com



'코리아군단' 배상문·노승열

PGA 새해 첫 도전

총상금 570만 달러 '현대 토너먼트'
지난해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권
참가자 28명 모두 20~30대 '젊은 피'
버바 왓슨·제이슨 데이 등과 경쟁

배상문(29·캘러웨이골프)과 노승열(24·나이키골프)이 올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첫 우승에 도전한다. 하와이가 그 무대다.

9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하와이 카팔루아 골프장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11야드)에서 열리는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570만 달러·63억1000만원)는 지난해 PGA투어 우승자 28명만이 출전하는 별들의 잔치다. PGA투어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한국인 출전자는 배상문과 노승열이다. 지난해 말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배상문은 2014~2015시즌 PGA투어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하고, 노승열은 지난 시즌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해 이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올 시즌 PGA투어는 벌써부터 세대 교체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28명의 선수 전원이 20~30대이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40)와 필 미켈슨(45), 짐 퓨릭(45·이상 미국) 등 40대 골퍼 3인방이 모두 이 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우즈는 지난해 3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7개월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7개월 만에 필드에 복귀한 PGA 챔피언십에서는 컷 탈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최악의 시즌을 마감했다.

미켈슨은 PGA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우승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고, 퓨릭은 투어 챔피언십 등 네 차례나 2위에 올랐지만 역시 우승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반면 마스터스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4위인 버바 왓슨(37·미국)을 비롯해 세계랭킹 8위 제이슨 데이(28·호주·캐딜락 매치플레이 우승), 소니오픈과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우승자 지미 워커(36·미국)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브리티시 오픈과 PGA 챔피언십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26·북아일랜드)와 3위 애덤 스콧(35·호주·크라운프라자 인비테이셔널 우승), 6위 저스틴 로즈(35·잉글랜드·퀴큰 론스 우승)는 출전 자격을 얻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

따라서 코리아 군단 배상문과 노승열이 우승으로 가는 길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배상문은 올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우승 이후 CIMB 클래식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페덱스컵 랭킹(605포인트)과 상금순위(134만6000달러·14억9000만원), 톱텐피니시율(66.7%)에서 각각 2위에 올라 있다. 올 시즌 한국 선수 중 가장 기대되는 한 명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병역 문제로 인한 심적 안정이 관건이다.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상문의 국외 체류기간은 길었지만 미국 실제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문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이달 말까지 국내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PGA투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노승열은 지난해 말 미국 CBS스포츠 선정 '2015년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골프 선수 5명' 중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어느 해보다 주목받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고액 연봉 좇아 해외로, 해외로…

K리거가 외면하는 K리그

전북 김남일·서울 김주영 등 이적



日 교토상가 김남일



中 상하이 둥야 김주영

쓸 만한 K리그 선수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2014 시즌 전북 현대의 K리그 클래식 우승을 이끌었던 김남일(38)은 일본 프로 2부리그의 교토상가로 이적했다. FC 서울 주축 수비수 김주영(27)은 중국 상하이 둥야로 떠났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에이스 이명주(24)가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인으로 이적했다. 9월 상주 상무에서 제대한 이근호(30)는 원 소속팀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타르의 엘 자이시로 방향을 틀었다.

K리그에서 뛰다 해외로 이적한 선수(외국인 선수 포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65명, 2013년 76명을 기록하더니 지난해 80명을 넘어섰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선수는 2012년 25명에서 2014년 61명으로 크게 늘었다.

빠져나가는 스타 선수는 많지만 돌아오는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유는 돈이다. 선수 입장에서 해외 팀들이 제시하는 고액의 연봉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과 중동의 구단들은 지갑을 통 크게 열며 K리그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반면 K리그 구단들은 선수 영입이나 투자에 인색하다. 지난달 9일 열렸던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는 1명(아주대 허재녕)뿐이었다. 신인에게 연봉 5000만원을 보장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유망주들도 K리그보다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5 신인드래프트에서 포항에 우선 지명된 황희찬(19)은 포항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이적해 논란을 빚었다. 2013년 제주에 자유계약으로 영입된 류승우(22)는 입단만 한 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임대됐다가 최근 완전히 이적했다. 백승호(18), 이승우(17), 장결희(17) 등은 10대 초중반부터 해외로 건너가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뛰고 있다.

축구계 인사는 "K리그 선수들이 중동에 가면 연봉이 3배는 뛴다"며 "선수 투자에 대한 구단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좋은 선수들과 어린 유망주들은 계속 떠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성근 기자 sgchoi@

경제계 신년인사회서 '기업인 삶' 담은 동영상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기획

"지쳐도 지칠 줄 모르고
아파도 아파할 줄 모르는…"
참석자들 뜨거운 박수 갈채
"파일 제공해달라" 요청 쇄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기획한 신년인사회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제공 대한상의

"지쳐도 지칠 줄 모르는, 아파도 아파할 줄 모르는 기업인의 삶. 없는 나라에서 맨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상공인들이었기에 우리는 포기를 모릅니다."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박용만 〈사진 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기획한 대한신년인사회 동영상이 흘러나왔다. 조수미씨가 부른 스웨덴 성가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Bred Dina Vida Vingar)'를 배경 음악으로 기업인의 삶을 담은 사진과 해설 문구가 동영상으로 흘러나오자 참석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4분 17초 분량의 영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기업사진 공모전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수상작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신년인사회 때 상영할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영상 제작의 전 과정도 총괄했다. 시나리오를 직접 짜고, '지쳐도 지칠 줄 모르는, 아파도 아파할 줄 모르는 기업인의 삶' 등 스크립트의 주요 문구도 만들었다. 배경음악도 직접 선곡했다.

박 회장은 동영상 제작을 맡은 오리콤에 "이 동영상은 광고가 아니다. 사진 촬영자의 의도를 해치지 말고 멋있게 보이려 사진을 왜곡시키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두산그룹의 광고 문구 '사람이 미래다'를 직접 만들었고, 지난해 둘째 아들 결혼식 때도 축가를 직접 지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 회장이 직접 만든 동영상은 행사가 끝난 이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교보생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 20여개 기업·단체에서 '회사에서 상영하고 싶다'며 파일 제공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상의는 배경음악 저작권 문제로 기업들에 동영상 파일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대한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한화, 하버드 대학생과 함께 재능기부

㈜한화는 하버드 대학생들과 함께 국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영어로 교육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4회 날개나눔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가 4년째 후원하고 있는 이 행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과 공유, 청소년들이 영어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잠재된 리더십 능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군 소재 한화인재경영원에서 진행된다. 하버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과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날개나눔(WingSharers)팀'이 글로벌 리더십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 등을 진행한다.

또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이안 스토리 교수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는 100명의 고등학생은 온라인으로 참가를 신청한 전국의 1~2학년 고등학생 500여명 중 서류심사와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조남호 기자 spdran@

우리은행 '희망나눔 캠페인'에 10억 기탁



우리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 모금 활동으로 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모금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광구 행장은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나눔을 통해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후보에 하반신 마비 조선족 김욱씨

장애인 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
어려운 환경 학생 학비지원 등
선행 알려져… 인터넷 투표 1위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후보에 오른 조선족 김욱(44·사진)씨의 감동 사연이 화제다.

김씨는 2014년 한해 동안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은 2002년부터 매년 10명의 '감동 중국' 인물을 선정했다. 이는 시대를 앞서가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인물들을 뽑는 것이다.

'2014 감동 중국 추천선발위원회'는 지난해 말 27명의 후보를 선정해 현재 인터넷 투표(news.cntv.cn/special/gdzg2014/toupiao2014)를 진행하고 있다.

6일 기준 12만1000여명이 참여했고, 김욱씨가 2만2000여 표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다. 투표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자살하려고도 생각했던 그는 부모가 사준 컴퓨터와 만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갔다.

그는 2000년 옌지(延吉)시에 육룡컴퓨터양성학교를 세우고, 절망을 체험한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는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쳤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도 학비를 절반밖에 받지 않았다.

김씨는 지금까지 3000여명의 장애인과 1만여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애인들의 창업 본보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섰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빈곤 가정을 찾아가 위로했으며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즉시 달려가 학생을 보살펴주기도 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담뱃값 인상 주역 최경환·문형표 "금연"

"건강 위해… 동참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문형표 장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이끌어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 금연을 결심했다.

두 장관은 관가의 대표적인 '애연가'로 손꼽혔지만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직접 증명하고자 금연을 실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들어 6일째 담배를 한 모금도 안 했다"며 "3년을 끊어야 끊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끊겠다"며 강한 금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교 2학년 때 담배를 시작한 최 부총리는 하루 두 갑 가까이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적극 동참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평소 금연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문형표 장관 역시 새해 들어 '사실상 금연'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업무 중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어지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민정 기자 puri21@

부시 전 대통령, 결혼 70주년

역대 美 대통령 중 최장 해로

조지 H.W 부시(91)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 바버라 부시(90) 여사 부부가 6일(현지시간) 결혼 70주년을 맞이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41대 대통령을 지냈고 결혼 다음해 태어난 큰아들 조지 W 부시(69)는 43대 대통령이다. 또 둘째 아들인 젭 부시(62)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2016년 차기 대선 출마를 목표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000년 결혼 55주년이던 부시 전 대통령 내외는 역대 미국 대통령 최장 해로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후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타깃' 前 CEO 퇴직금 521억 논란

지난해 5월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물러난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Target)의 그레그 스타인하펠 최고경영자(CEO)의 퇴직금이 4700만 달러(약 521억원)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CBS방송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수많은 사람이 퇴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깃 측은 "스타인하펠 전 CEO의 퇴직금은 재직 기간 발생했으나 지급이 연기된 보상을 포함해 여러 보상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광복 70년, 독도서 세계 골프대회 열겠다"

서경덕 교수, 이벤트 추진


서경덕 교수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독도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골프 이벤트가 열린다.

이벤트는 한국 홍보 전문가이자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교장인 서경덕(41)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했다.

그는 "광복 70년을 맞는 8월 국내외 유명 골퍼를 독도로 초청, 동도에서 티샷을 해 서도의 홀 컵에 홀인원시키는 골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도와 서도 거리는, 골프 코스에서 한번에 온 그린할 수 있는 파3 정도다.

서 교수는 "골프 이벤트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면 자연스럽게 독도를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추진 배경을 언급했다.

독도학교 교장인 그는 배우 조재현과 함께 '독도 뉴스' 2탄 제작을 구상 중이다. 가수 윤종신이 참여한 '독도송'도 8월경 선보인다 . 가수 이승철, 김장훈 등과 다양한 이벤트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는 "오는 21~24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한국 홍보)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며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비롯해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 한글 안내서를 비치하는 프로젝트도 계속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경진 기자 jungkj@

인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김문식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기본계획TF 팀장 송준헌

◆국민안전처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건두

◆법제처 ◇과장급 승진 및 인사교류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류철호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양정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박기훈 △" 남부작물부장 이영희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화담당관 심근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김선림 △"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장 강항원 △운영지원과장 김종배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이승재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강민구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이병서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백인열 △" 작물육종과장 김보경 △" 작물재배생리과장 이건휘 △" 중부작물부 중부작물과장 이점호 △" 중부작물부 수확후이용과장 김욱한 △" 남부작물부 밭작물개발과장 오인석 △"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장 권영업 △"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이경보

◆조달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임종성 △전자조달국장 김정운 △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신기술서비스국장 변희석 △서울지방조달청장 장경순

◆문화재청 ◇3급 승진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부이사관 김계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용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보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 진로교육센터장 정윤경

◆교보생명 ◇이동 〈FP지원단장〉 △서대문 김형준 △동대문 김명훈 △일산 최백규 △마포 류재춘 △노원 윤장국 △의정부 이동섭 △강남중앙 전상혁 △강남 김태복 △강동 강천 △계양 한성년 △강서 이석준 △동래 서동만 △부산중앙 조상호 △통영 정학근 △창원 신현석 △울산특별 송재욱 △수성 이재도 △목포 정기환 △광주 김동근 △제주 김병진 〈AM사업단장〉 △강남 김희홍 △서부 윤진철

◆KB캐피탈 ◇부장 전보 △Retail채권기획부장 김인범 △기업심사부장 신용운 △전략기획부장 김세민 △소비자보호부장 겸 업무지원부장 김웅겸 △마케팅홍보부장 이영제 △기업금융2부장 강우종 △감사부장 석균우 △개인심사부장 이장욱 △인력개발부장 김동규 △재무기획부장 이정일 △리스크관리부장 최윤섭 △총무부장 김재영 ◇지점장 전보 △강북지점장 조태익 △강남지점장 정성길

◆비트허브 △편집국 디지털산업부 부장 양창균

부음

▲이근(가천대 길병원장)씨 장모상, 오덕신(삼육대 교수)씨 모친상 = 6일 오전 8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032-460-3444

▲심창섭(삼성 라이온즈 운영팀 육성파트장)씨 부친상 = 5일 오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2-2258-5940.

▲유순혁(전 상업은행 전무)씨 별세, 유경태(재미)씨 부친상 = 5일, 용인 다보스병원 영안실 5호, 발인 8일 오전 8시, 031-8021-2186

▲이선희(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용남씨 부친상 = 6일, 경기 시흥시 신천연합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0시, 031-310-6441

▲김광원(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 6일 오후 5시 40분,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9시, 010-5215-2246

▲장호동(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추진단 담당)씨 장모상 = 6일 오전 2시, 경북 문경시 국화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054-556-4403

▲권병규(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관리팀장)씨 장모상 = 6일 오전 1시 10분, 서울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2-2650-5121

국회 경제포럼 민 병 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해외직구 아닌 해외직판이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를 생각해 보면 해외직구(직접구매) 열풍과 이케아 열풍이 아닐까 한다.

해외 직구 열풍은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케아 열풍은 '가구 공룡'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주변 상권과 가구업계의 일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해외 직구 열풍과 이케아 열풍은 양자 공히 유통산업의 혁신에 대한 대중적 갈망의 표현이며, 동시에 '유통의 세계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해외 직구 열풍과 이케아 열풍은 '국내 공급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유통혁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유통의 세계화'는 반드시 '국내 공급자'에게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경우의 수로 볼 때 '유통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첫째, 유통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이런저런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만과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유통의 세계화'를 역발상에 입각해 국내 공급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와 별도로 국내 공급자들의 '해외 직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내 공급자들이 유통의 세계화를 활용해 전 세계의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현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망을 뚫었는데, 일본에 명함을 수출하고 있는 여수룬의 김종박 대표, 중국에 동대문의 의류를 수출하는 에이컴메이트의 강철용 대표, 일본에 골판지 상자를 수출하는 지즐의 이정호 대표가 그러하다. 이들은 각각 80억원, 1000억원, 1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모두 '평범한' 제품을 판매하는 '평범한' 중소기업들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유통의 세계화'를 주어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벤처창업 열풍'을 만들었던 것처럼 '해외 직판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해외 직판 10만 창업인 양성' 등의 담대한 포부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진짜 실체'인 셈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철의 아하!



논설실장

3만 달러의 불편한 진실

특이한 새해다. 희망이 넘쳐야 할 신년에 오히려 비관론이 휩쓸고 있다. 정부는 리더십과 비전이 남았을 법한 집권 3년차이고 주요 경제 성과도 멀쩡한데 그렇다.

당장, 한참 뛰어야 할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는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3%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기류를 고려하면 괜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이 3.8%를 기록하며 멕시코(3.9%)에 이어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3.5%로, 회원국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주요 척도인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807달러로 늘어나 세계 주요국 중 24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88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빨리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것이란 뜻이다. 올해 3만 달러를 달성하면 2만 달러 졸업에 12년 걸린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보다 3년가량 빠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에 전체 인구 수 5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등 6개국뿐이다. 아프리카 약소국에도 못 미치던 한국이 광복 70년 만에 '30-50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될 것이란 뜻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에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새해부터 러시아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고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금리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젖줄인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으며 디플레이션 공포감만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전셋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일자리 불안은 전 세대를 강타하고 있다.

3만 달러 진입도 내실보다 과대포장된 상태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환율의 마술이 작용한 데다 실질소득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선진국은커녕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을 1100원으로 잡으면 1인당 한 해 소득이 3300만원으로 4인 가구면 1억3000만원 이상의 평균 소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기업소득이 포함돼 있어 실제 개인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 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더욱 그렇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98년 이전에는 각각 0.26, 0.27이었는데 지금은 0.35를 넘어섰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도 OECD 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심각하다.

세계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IMF, OECD 등도 진보적 시민단체를 방불할 정도의 깜짝 보고서까지 내고 있다. 연초에 열린 전미경제학회의 화두도 회복세를 탄 미국 경제나 저성장 늪에 빠진 유로존이 아니라 불평등이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불평등을 놓고 불꽃 논쟁을 벌였다. 이에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도 지난해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평등 확대가 영속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 놀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법과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진정성과 적극성이 아쉽다. 오히려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게다가 사회적 논의마저 진영논리에 함몰돼 건설적 공론의 장이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정부 정책 등에서 비롯된) 이런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해법 찾기에 나서야겠다. 불평등 해소가 밥 먹여 준다는 그런 자세로 말이다.

banta102@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4년 만에 돌아온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김명민



배국남닷컴은 5일 4년 만에 돌아온 '조선명탐정' 김명민을 만났다. 김명민은 5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진행된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전작에 이어 출연하는 소감과 오달수와의 호흡, 김석윤 감독에 대한 신뢰 등을 드러냈다.

김명민은 '남남커플'로 찰떡 호흡을 과시했던 오달수와의 만남에 "연락은 간간이 했다. 헤어진 집사람을 만나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달수와 김석윤 감독이 아니면 속편을 제작할 이유도, 의미도 없다. 그러다 보니 4년을 기다렸다"며 "NG 날 일이 거의 없다. NG가 날 것 같으면 '컷' 하고 '오케이' 사인을 준다. 진짜 사인이 빠르다. 심지어 대사가 다 안 끝났는데 '컷'을 해 버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민은 또 전작과의 차이점에 대해 "캐릭터가 달라진 건 없다. '허당끼'가 더 많아졌다. 전체적으로는 스케일이 커졌다. 전편에서 아기자기한 발명품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실제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며 "개인적으로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해 보고 쓰러지는 배역(김민)의 모습은 불만이었다. 2편에서는 더 심해졌다. 말 한 번 못 붙이고 침만 흘리면서 쓰러진다"고 말했다. 전편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은 누적 관객수 47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때문에 이날 제작보고회에서는 500만 돌파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명민은 500만 돌파 공약에 대해 "500만 공약은 후속편 제작이다. 관객들에게 3탄으로 보답하겠다. 감독과 이미 무언의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은 사건 해결에 나선 명탐정 김민(김명민)과 서필(오달수) 콤비가 펼치는 코믹 어드벤처 탐정극이다. 2월 개봉 예정.

최두선 기자 sun@

온라인 와글와글

음료값 잇따라 인상…끊을 것들 늘어만 가네

○…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우리나라가 제출한 쌀 관세율 513%에 공식적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선 "정부가 공언했던 보호무역 강제로 열리게 생겼네", "솔직하게 외국에 비해 쌀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다. 똑같은 돈으로 물가 비싼 영국에 가도 훨씬 많은 양 살 수 있다. 서민, 서민 하는데 정부가 국내 농민 쌀값 보전해주고 시장 개방하는 게 답인 거 같다", "솔직히 쌀값 언제까지 그 따위로 받아 먹으려고 이 참에 내려라!", "일본과 대만은 대략 240%다. 근데 500% 넘게 관세율 책정하면 어느 나라가 수긍하겠냐? 타국이 이의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쌀은 우리 주식이다. 외국놈들이 뭐라고 해도 농민을 지켜야지. 왈가왈부하는 건 내정 간섭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칠성사이다를 포함해 펩시콜라, 칸타타 등 인기 음료들의 가격이 6%가량 오른다는 소식에 온라인상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은 "원자재 가격 뭐가 오른 건지 밝혀라! 진짜 웃기네. 당장 음료수 끊어야겠다", "스프라이트나 마셔야겠다", "이것저것 다 오르네. 음료수야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가격 오른다는 기사를 보면 슬프다", "진짜 올리는 이유가 뭘까? 만날 침 바르는 소리 말고 그놈의 멘트는 바뀌지도 않아. 설탕이 어쩌구 원부자재 가격이 어쩌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뭐가 인건비 상승이냐? 인건비가 임원 월급은 아니겠지?", "월급만 빼고 다 오르네. 그래서 월급은 언제 오른다고요?", "올릴 줄만 알고 내릴 줄은 모르는 기업가들.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기업들은 없어지길" 등 비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경찰, 김우종 코코엔터 대표 지명수배에 인터폴까지 동원
2. 서초동 일가족 살해 용의자 "아빠 지옥서 죗값 치를게"
3. 김상민–김경란 결혼식… 하객들 화려하네
4. 수면제 먹여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카페 주인
5. 애플, "진짜 휘는 스마트폰 만든다"… 주가 상승



데스크 칼럼

그렉시트, 그리고 유로존의 원죄



배 수 경
온라인뉴스부 뉴스팀장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그리스발 악재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세계를 강타한 유럽 재정위기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유로존의 약한 고리는 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PIIGS(피그스) 국가에 '유로존의 문제아'라는 오명을 안겼다. 그리스·로마 등 유럽 문명의 원류 역시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현대 그리스의 비극은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특급 대우가 단초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가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것은 1981년.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스페인보다 먼저였다. 유로존 가입도 독일·프랑스 등 선행한 11개국보다 불과 2년 늦은 2001년이었다.

여기에는 유럽 문명의 원류인 그리스에 대한 유럽인들의 모종의 경의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개최는 철학, 예술에서 과학기술까지 그리스 문명의 역사적 무게를 세계에 재확인시키는 장이었다.

하지만 세계가 간과한 것이 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여야 한다는 유로존 재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른바 '분식회계'로 재정이 휘청거리면서 그제서야 그리스의 실체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 2009년 말 이후 그리스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은 추락했고 부도 가능성의 지표인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의 보증료율도 크게 뛰었다.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연금제도 등 방만한 재정 운영과 유로존 가입으로 대외 차입이 수월해진 것이 위기를 키운 셈이었다. 결국 그리스는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체제의 공동 관리 하에서 재정지원의 대가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탈리아도 그리스와 함께 '피그스' 그룹에 포함됐지만 사정은 다르다. 이탈리아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을 받았지만 재정수지는 그리스만큼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 오히려 이탈리아의 위기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탈리아는 스스로 유럽 문명의 원류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EU의 출발점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는 프랑스·독일·베네룩스 3국(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과 함께 창설 멤버 6개국 중 하나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유로 창설 멤버에선 제외됐었다. 당시 유로 창설에 신중했던 독일이 2단계론을 표방,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이탈리아의 가입을 보류했던 탓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탈리아는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반대, 결국 독일·프랑스·베네룩스 등 초기 멤버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이탈리아를 유로존에 가입시켰다.

스페인은 유로존의 경제 위기와 함께 설상가상 분열 위기까지 겹쳤다. 재정이 가장 풍부한 카탈루냐 주를 둘러싸고 분리독립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화가 호안 미로 등을 등에 업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카탈루냐 주가 분리독립할 경우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스페인과 더불어 대항해시대를 연 포르투갈의 재정위기도 여전히 심각하다. EU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이 제정된 포르투갈은 유로존 재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최초의 나라로 그리스와 함께 대표적인 '유로존의 문제아'로 꼽히고 있다.

고대 로마제국과 싸웠던 켈트 문화의 원류 아일랜드도 국제적인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는 처지다.

시장은 정직하다. 유럽 문명의 원류이든 유서 깊은 역사든 투자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린다. 애초 유로존 창설은 유럽을 살리고 유로페시미즘을 불식시키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유로포리아도 잠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는 죽는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유로존의 방만한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sue6870@

Talks 박상영의 정책톡톡

담뱃값 인상의 '숨은 목적'

정치경제부 기자



"새해부터 담배를 끊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금연에 앞장서겠다."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담뱃값 인상안을 들고 나온 이후부터 그는 줄곧 새해부터는 앞장서 담배를 끊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연가로 유명하다. 지난 10월에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구역을 같이 설정해야 한다"며 흡연권을 옹호했다. 앞서 9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중국 재무장관과 '흡연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담배 필 곳이 마땅치 않아 숨어서 핀다며 흡연자의 고충을 토로하던 최 부총리가 새해부터 단번에 담배를 끊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세수 증대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제시할 때부터 한편에서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내세우지만 뒤에는 세수 증대라는 '숨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뒷받침하듯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할 때 세수가 최대값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가격이 5500원까지 오르면 3500원일 때보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늘지만, 그만큼 소비가 줄어 세금 총액은 3500원일 때와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담배값이 4500원일 때 최대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담뱃값 인상 후 정부가 보이는 행보도 이런 의구심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담뱃갑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 이외에 비가격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아울러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광고는 여전히 성행 중이며 병 주고 약 준다는 비아냥을 받는 담배 파는 약국도 줄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흡연자들의 건강 증진사업에 쓰이는 예산 또한 증가하지 않았다.

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을 보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1475억원이 투입된 반면 금연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연구개발(R&D)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3482억80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금연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한 개비씩 낱개로 파는 까치담배와 말아 피우는 롤링 타바코, 전자담배 등 흡연 틈새시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봉초 담배 등의 사례를 보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말을 꺼내놓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담배의 폐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처음 밝혔던 대로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부처 수장의 금연보다 경고 그림과 담배 광고 제한, 흡연 틈새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

sypark@

객석

따뜻한 말 한마디



윤 소 연 롯데리아 홍보팀 대리

2014년은 유독 '말(言)'로 인해 울고 웃는 사건이 많았다.

이륙 준비에 들어간 여객기를 말 한마디로 회항시킨 '땅콩 회항'과 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던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분신', 주차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까지 한 백화점 모녀사건 등 끊임없는 '갑의 횡포'에 대한 사례들이 매일같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갑의 횡포, 즉 갑이 을에게 행하는 부당 행위인 '갑질'은 사회 집권층이나 우월적 권위를 가진 소수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홈쇼핑 상담원이 자신의 말을 잘 이해못 한다는 이유로 괜한 화를 내기도 하고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직원들에게 그들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간혹 아랫사람 대하듯 명령조의 말투와 반말을 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정과 직장 생활 등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갑질의 주체가 자신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 연말 각 방송사 연예대상 시상식에서는 공동대표의 횡령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그맨 김준호를 향한 동료 개그맨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수상 소감을 통해 전해졌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 힘든 동료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위로 그 이상으로 평생 가슴에 남아 김준호가 다시 일어설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듯 무심코 던진 한 마디의 말이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약이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무수한 속담과 격언들은 말의 중요성과 조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번쯤 더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기자수첩

제약사 새해 화두 '글로벌·신약'



강 인 효 미래산업부/@

지난 한해 동안 제약업계는 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원과 수출 2억 달러를 각각 돌파하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자 국내 제약사들은 새해 경영 화두로 '글로벌 진출'과 '신약개발'을 제시했다.

지난해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각종 규제 완화는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올한해 내수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약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수십 개의 업체가 공존하는 제네릭(복제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특허가 만료된 고지혈증약 '크레스토' 시장에는 무려 72개의 제네릭이 진입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출시된 국내 제약사의 신약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또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도 활발해져 올해 의약품 수출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글로벌 신약 육성을 외치면서 제약사들에 R&D 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진출과 신약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 전체 매출은 연간 16조원 정도에 불과해 상위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의 매출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결국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은 국내 제약사들의 숙명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산 토종 신약 개발만이 그 방법이다.

한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국내 제약사들이 일제히 글로벌 진출과 신약개발을 주창한 데는 이 같은 인식이 있을 것이다. 국내시장의 한계를 깨닫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내 제약사들의 살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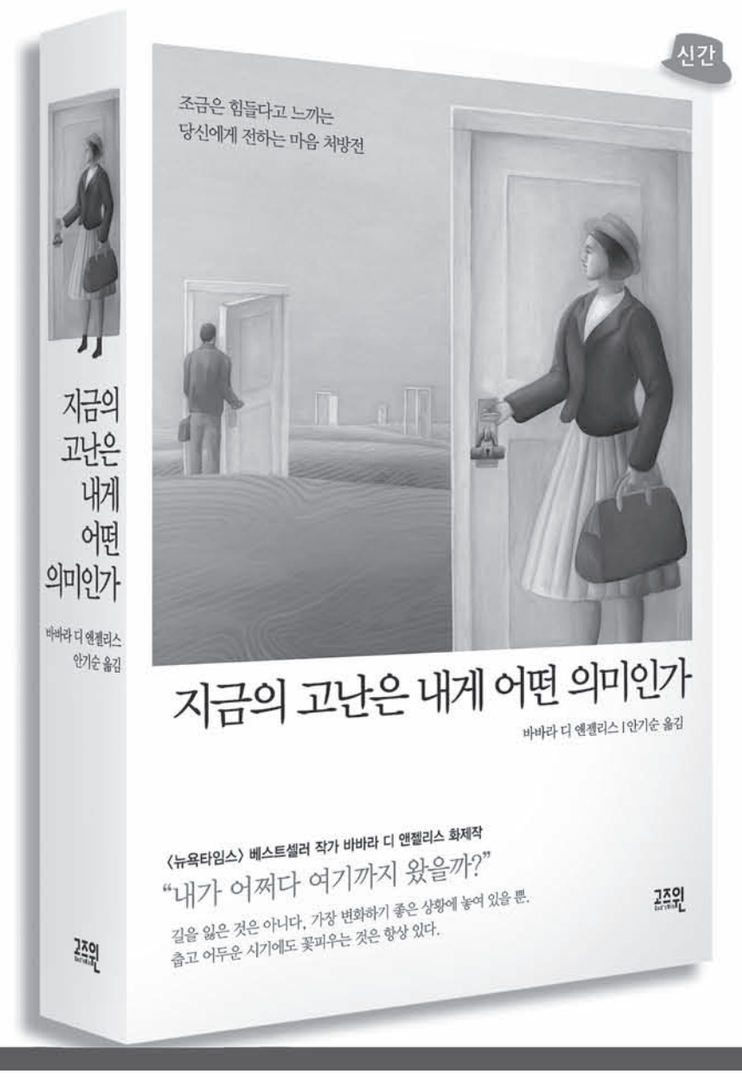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조금은 힘들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 처방전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 412쪽 | 14,500원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멈춰 서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획기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 반스앤노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화제작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춥고 어두운 시기에도 꽃피우는 것은 항상 있다.

당신을 닮은 좋은책 고즈윈 TEL.02)325-5676

NEW PRODUCT

JANDIRO GOLF

백세로닷컴 오픈기념

고객초청 50% 세일!

잔디로 이지 힐클립 천연가죽 신사화!

외 피: 100% 천연 소가죽
내 피: 냄새를 잡아주는 천연가죽
생 산: 100% 국내생산



더비 유 팁 신사화 DM F213-01

더비 윙 팁 신사화 DM F211-02

구두뒷굽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더비 윙 팁 신사화 DM F211-01



스트레이트 팁 신사화 DM F212-02



스트레이트 팁 신사화 DM F212-01



더비 유 팁 신사화 DM F213-02

국내생산 잔디로 천연가죽 신사화! 백세로닷컴 오픈기념 50% 세일! 가격: ~~₩176,000원~~ → 할인가격: **₩88,000원**

잔디로 온라인 쇼핑몰 백세로닷컴 오픈!

오픈기념 1+1이벤트!

1년간 무상 A/S 및 품질보장!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100% 국내생산



검정색, 진밤색, 연밤색, 빨강, 오렌지, 그레이, 백색 중 선택

품질이 다른 명품가죽 골프벨트 2세트!
소비지가격: ~~88,000원~~ → 할인가격: **48,000원**

www.jandiro.com | www.baeksero.com |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2690-9002**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여성 금융인/ 신순철 신한은행 부행장 ▌20면



“핀테크發 금융혁명 경계 넘어 융합하라”

Cover Story 신년사로 본 금융권 화두

“핀테크·복합점포·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을미년(乙未年) 신년사를 통해 밝힌 핵심 화두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다. 금융시장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이젠 필수가 됐다. 여기에 은행, 증권사 등 업권 간의 복합점포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출현은 금융권의 패러다임마저 바꿀 기세다. 올해 금융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업권간 융합으로 압축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새로운 금융환경 적응

은행+증권 ‘복합점포’ 문 활짝 시너지 극대화

투융자복합상품 등 개발 다양한 수익원 창출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핀테크 혁명이라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2015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마저작침(磨杵作針)의 자세로 걸어 나간다면 ‘금융강국’의 원대한 꿈에 다가설 수 있다”며 “핀테크와 창조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 역시 정보기술(IT)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핀테크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권선주 기업은행장도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CEO들은 조직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강조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외환과의 통합은 그룹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하나금융의 혁신을 만들고 고객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업종 경계를 넘어선 서비스, 나아가 타 업종과 융합하는 상품을 개발하자”고 말했다.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은 “역량을 집중해서 3대 핵심 사업인 은행·보험·증권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협금융은 몇 번의 전산 사고로 유·무형의 큰 손실을 본 만큼 기본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협금융은 지난 복합점포 1호인 광화문 NH농협금융 플러스센터를 오픈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따라 한 점포 내에서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함께 볼 수 있게 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복합점포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과거와 같은 여신 위주의 운용만이 아니라 투융자복합상품, 다양한 대체투자 방안 등 폭넓은 관점에서 고객자산과 보유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방향을 설정했다면 실행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고객에 대한 신뢰 회복과 영업 중심 경영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으로 그룹의 위상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자고 취임식에 밝혔다”며 “이제 준비를 마쳤고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방향을 설정했다면, 실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해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우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고객을 더욱 정확히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CRM을 개선해 고객의 생애 주기별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강점인 기업금융을 기반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기업의 임직원들도 우량고객으로 확보하는 기업 토털 마케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협회장들은 수익 개선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붕정만리(鵬程萬里·먼 북쪽의 물고기가 ‘붕(鵬)’이라는 새로 변해 남쪽으로 쉬지 않고 날아간다)’를 인용하면서 “금융산업이 성장하려면 적정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초윤장산(礎潤張傘·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펼쳐라)’을 인용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주문했다.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중석몰시(中石沒矢·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커다란 바위에 화살을 깊숙이 박아 넣음)’를 인용하면서 “손보산업이 신뢰받는 종합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를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김근수 여신협회장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저성장, 저물가, 엔저의 3중고 속에서 업계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커버스토리 18·19면



금융지주 및 은행 CEO 새해 경영 전략

한동우	윤종규	김정태	임종룡	홍기택	서진원	권선주	이광구
신한금융 회장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	하나금융 회장	농협금융 회장	산업은행 회장	신한은행장	IBK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인터넷 전업은행 등 IT를 이용한 비대면 신채널에 선제적으로 대응	저금리 ·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	더 많은 고객이 하나금융과 거래할 수 있도록 총력	외형에 걸맞도록 수익성 제고	위험 감수자 역할을 통해 시장 개척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와 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고객기반 확대, 시장 우위 확보, 금융 혁신 선도 달성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채널 강화 금융 新트렌드 선도”

지주사·은행 ‘새해 전략’

4대 지주와 7대 은행 등 금융권의 새해 화두는 ‘수익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침체 우려,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4대지주 경영전략 각양각색 =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경영진 50여명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일산연수원에서 경영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윤 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은행도 당면한 여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영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인터넷 전업은행 등 정보통신(IT)을 이용한 비대면 신채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인터넷 전업은행 등 IT를 이용한 비대면 신채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비대면 방식의 고객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올해 은퇴시장 선점 의지를 밝히고, 글로벌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혁신적인 채널 운영체계 구축, 고객 관점에서의 대면·비대면 채널 최적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저성장·저금리·경제불확실성 ↑ 새로운 경영환경 ‘경계 대이동’ 기술금융·해외 영토확장 주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면서도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고객이 하나금융과 거래할 수 있도록 그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고객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은 조직 내 협업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새해 화두로 잡았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해 NH투자증권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올해는 농협금융의 외형에 걸맞도록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고객기반 확대·혁신 한목소리 = 시중은행장들 역시 수익 다변화와 함께 혁신을 올해 가장 큰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고객기반 확대, 시장 우위 확보, 금융 혁신 선도를 3대 경영목표로 정해 눈길을 끈다.

이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고객 한분 한분을 모셔오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올해의 경영목표로 세우고 3가지의 경영전략을 통해 이를 강력히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CRM을 개선하고 기업금융을 기반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그 협력기업의 임직원들도 우량고객으로 모셔오는 ‘기업 토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행장은 또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등 리테일 영업의 기회를 만들고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자산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시장 우위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핀테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복합점포 신설에 대비해 증권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올해 전략 목표를 ‘창조적 혁신, 경계를 뛰어넘는 금융 미래 선도’로 정했다. 서 행장은 “2015년에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경계가 생성·확장되는 ‘경계(境界)의 대(大)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인식과 제도, 경쟁 전반에 걸친 경계 대이동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가자”고 당부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위험감수자’ 역할을 과감하게 하겠다는 신년 계획을 세웠다. 홍 회장은 민간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과감히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이나 인수·합병(M&A)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권 행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통합플랫폼 ‘IBK One뱅크’를 구축하고 옴니채널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을 돕는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금융수장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



〈신제윤 금융위원장〉

行不由徑
떳떳하게 큰 길로 나아간다

柔能制剛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수장들은 각자의 사자성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나란히 새해 가장 큰 과제로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꼽았다.

먼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논어 ‘옹야’ 편에 나오는 ‘행불유경(行不由徑)’이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길을 나설 때 지름길이나 뒷길을 택하지 않고 떳떳하게 큰길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새해 역점 과제로 제시한 ‘핀테크 혁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흐름”이자 “한국 금융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가는 길이 대의고 정도라면, 가시덤불이 뒤덮은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전진해야 한다”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금융강국’ 실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들에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인 ‘유능제강(柔能制剛)’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카드사 정보 유출, KT ENS 대출 사기와 같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감원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또한 진 원장은 “가계부채, 기업 부실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독·검사 방식을 금융사 자율과 창의·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과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주요 협회장들은 업황 불황에 수익성 증대와 신성장 동력확보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실추된 고객과의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붕정만리(鵬程萬里·먼 북쪽의 물고기가 ‘붕(鵬)’이라는 새로 변해 남쪽으로 쉬지 않고 날아간다)’를 인용하며 금융산업이 성장하려면 적정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초윤장산(礎潤張傘·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펼쳐라)’을 인용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2018년으로 도입이 예정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는 생보업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손보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종합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2015년을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석몰시(中石沒矢·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커다란 바위에 화살을 깊숙이 박아 넣음)’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보험사 CEO 새해 경영전략



김창수	신창재	안민수	이철영	김정남	김병헌
삼성생명 사장	교보생명 회장	삼성화재 사장	현대해상 사장	동부화재 사장	LIG손보 사장
질적 성장을 통한 회사가치 극대화	비전2015인 '고객 보장을 최고로 잘하는 회사'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초일류 회사 도약	현장 중심 인사정책	수익 경쟁력 우위 확보	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

고객 신뢰 확대·손해율 구조 개선 '내실 다지기' 올인

교보생명·LIG '고객보장 최선'
삼성생명·화재 '영업효율 제고'
동부화재 '보장성시장 확대' 등
핵심역량 강화로 수익 극대화

보험사 경영전략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새해 먹거리 찾기, 내실 다지기 등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섰다. 저금리 기조, 소비 위축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대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올해 경영 방침을 질적 성장을 통한 회사 가치 극대화로 정했다. 규모로는 업계에서 압도적 1위지만, 역마진 등 경영상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는 만큼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사장은 1일 임직원과의 산행에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질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회사 가치 극대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비전 201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고객 보장을 최고로 잘하는 회사라는 '비전 2015'를 선포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신년사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이를 잘 유지하도록 정성껏 돕는 고객보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계약보다 고객보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생명보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장기보험의 경우 효율에 기반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자"며 "건강한 영업기반을 구축해 매출과 효율의 균형을 이루고, 상품과 교육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안 사장은 "자동차보험은 기필코 사업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며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고객만족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은 회사 성장의 근간은 현장에 있다며 본사와 현장 간의 원활한 인사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앞으로 회사의 인사정책으로 차기 관리자들이 현장 근무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향이 향후 인사정책에 있어 중추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회사 성장의 근간은 곧 현장이며, 현장 없이는 우리 현대해상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별로 매출 성장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손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영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손해율 상승 추세 대응을 위해 상품개발 단계부터 인수정책 수립, 언더라이팅 및 보상, 전 프로세스에 걸친 업무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올해 수익 경쟁력 우위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수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더라이팅을 정교화하고 우량담보 판매를 확대해 손해율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회사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의 안정적이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다. 또 김 사장은 해외영업의 리스크 및 수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흥시장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헌 LIG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를 '신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대도약 기반 구축의 해'로 정했다.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후 새로운 보험사(가칭 KB손해보험)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현재 LIG손보 직원에게 시급한 것은 자신감 회복과 강한 목표의식이라며 자부심과 애사심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사장은 2015년 회사 비전으로 '고객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고객선호도 1위 보험사'를 정했다. 회사 업무와 의사 결정의 최우선 기준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이를 위해 김 사장은 고객과의 최접점인 각 채널에서부터 고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객 터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채널 고유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4년 하반기 중기전략 방향을 수익성 중심의 내실 성장 추구로 정했다. 2015년 사업계획도 우량매출을 적극 키워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우량매출을 재정의하고 가격이나 언더라이팅·보상 분야를 보다 정교화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강구귀 기자 kkk@

카드사 경영전략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강원 우리카드 사장

'성과' '효율' '차별화' '핀테크'

카드사 CEO들이 을미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 '효율성 제고' '핀테크'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의 영업방식이나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지난해가 '빅투그레이트(Big to Great)'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해였다면 2015년은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 사장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적 안착과 새로운 진출국 모색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급성장하는 체크카드, 해외직구, 장기 렌터카 사업에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개인카드 이용액이 연간 100조원을 돌파했고 2200만 고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역량도 한층 강화했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5년은 새출발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15년을 기본 체질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해로 설정하고 △고객가치 중심의 인프라 강화 △전사적 효율성 혁신 △리스크 관리 최적화 △미래 성장 기반 확대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2015년은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영업, 마케팅 등 고객과의 접점 채널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와 편리함을 제공하고 가맹점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간편화(Simplication)'를 통한 업무 및 사업 효율화를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세웠다. 이미 현대카드는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대폭 줄이고 파워포인트 등을 없애는 체질개선 작업과 인센티브와 승진 기준을 달리하는 인사혁신 실험에도 돌입했다.

정 사장은 적립과 할인의 투트랙 기반 사업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우량고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비롯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손익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카드 채정병 사장은 올해 경영 전반에서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외형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사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장과 고객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트렌드와 니즈에 맞는 상품 위주로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와 옴니채널 분야의 그룹 인프라에 핀테크를 접목한 스마트 금융을 더한다면 막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는 2015년 경영목표를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1등 성장률 달성'으로 세웠다. 또 새해의 핵심 사업으로 △체크카드시장 선도 △프레스티지 고객 확대 △수익자산 증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리카드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월 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54조5000억원으로 15.3% 성장했다. 강원 우리카드 사장은 시무식에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매출 60조원을 넘볼 수 있다"며 "새해에도 거침없는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55 창립 55주년

LIG for Tomorrow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무배당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힘!내서 힘!차게!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콜센터 :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차별·워킹맘 역경딛고 신한은행 첫 여성임원에

“저도 ‘未生’ 선 차장 시절 있었죠”

⑩ 신 순 철 신한은행 부행장



△1979년 조흥은행 입행
△1998년 여신지원부 신용조사역
△2001년 강서기업금융센터 지점장
△2002년 영등포기업지점 지점장겸 RM
△2004년 여신심사부 심사역
△2006년 광화문기업금융지점 SRM
△2006년 신촌중앙기업금융지점장겸 SRM
△2009년 남부터미널금융센터장겸PRM
△2011년 개인금융부장
△2012년 경기중부본부 본부장
△2014년 신한은행 업무개선그룹 부행장보

‘차별을 노력으로 이겨낸 여성 금융인’.

신순철 신한은행 부행장에게 붙은 타이틀이다. 남녀차별이 당연시되던 1970년대 말 은행에 입사한 그는 지난 36년간 한시도 쉬지 않고 현장을 누볐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앞장서 일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론이 바탕이 됐다. 그 결과 신 부행장은 ‘신한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그는 후배 여성 금융인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조언한다. 결과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아를 단련시키면 ‘수적천석(水滴穿石)’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행원 전환고시 통과에도 여전한 벽
혼자 일하며 오히려 업무능력 키워
여성 특유 섬세함으로 고객 설득
남성 전유이던 ‘기업금융’서 인정
아이 ‘집에 있는 엄마’ 좋아하지만
‘일하는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것

◇“남녀차별, 노력으로 뛰어넘어라”= 신 부행장은 1979년 조흥은행에 입사했다. 당시 여성 행원은 공과금, 입출금 등 단순 업무에 배치됐다. 단지 여자란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호봉도 낮았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자 직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때였어요. 부당하다고 느꼈죠. 행원 전환고시에 통과해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국 피나는 노력 끝에 4년 만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신 부행장의 바람과 달리 차별의 벽은 쉽사리 낮아지지 않았다. 당시 대출·당좌·서무 업무를 보는 남성 행원에게는 보조인력이 투입됐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다 보니 늘 시간에 발목이 잡혔다. 밥을 거르는 게 일상이 됐고 퇴근이 가까워질 때면 몸은 녹초가 됐다. 하지만 신 부행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 시간을 분배했다. 자신이 챙겨야 할 것들을 다이어리에 꼼꼼히 적어 두고 업무 누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순발력이 많이 늘었어요. 프로젝트를 맡으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계획이 그려져요. 차별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결국 제 능력이 된 셈이죠.”

◇“여성의 강점인 ‘섬세함’을 앞세워라” = 신 부행장이 기업금융 지점장으로 일할 때다. 그는 신한은행과 단 한 차례도 거래하지 않았던 중소 유통업체를 찾았다. 해당 업체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신 부행장을 본 유통업체 사장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기업금융 시장은 남성 직원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신 부행장은 굴하지 않고 특유의 부드러움과 꼼꼼함으로 업체 사장을 설득시켰다.

결국 몇 달 후 이 업체는 사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닌 신 부행장에게 요청했다. 그는 곧바로 신용대출을 진행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이뤄낸 성과였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유통업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현재 신한은행의 우수고객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성을 갖고 고객을 위하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킹맘, 죄책감 갖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최근 신 부행장은 팀원들의 권유로 드라마 ‘미생’을 시청했다. 그는 극중 워킹맘 선 차장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육아로 고민하던 때를 떠올렸다.

1980년대 여성 행원에게는 60일(영업일 기준)의 출산휴가가 주어졌다. 산후조리를 마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베이비시터가 흔치 않았던 때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이에 대부분의 여성 행원들은 출산과 함께 퇴사했다.

그러나 신 부행장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산후조리를 마치자마자 은행으로 돌아왔다. 시부모님께서 흔쾌히 아이를 맡아 주셨다.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남편이 가장 많이 응원해 줬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는 당신의 능력이 너무 아깝다’고 말해 주더군요. 가족은 정신적 서포터스일 뿐만 아니라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그는 워킹맘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족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당히 일하는 아내를 그리고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지금의 저희 가족처럼요.”

◇ICT·금융 융합 트렌드 선도 =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및 보안 관제 프로세스를 정비한 신 부행장은 최고정보책임자(CIO)답게 고객 정보 강화에 더 매진할 계획이다.

“전산업무는 현장에서 필요한 IT를 지원해 주는 일이에요.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과 국내외 환경에 맞춰 잘 대응하겠습니다.” 글/박선현·사진/장세영 기자 sunhyun@

신 부행장 외유내강 비결은 ‘체력’



“야근·업무 스트레스 견디는데 새벽운동이 최고”

신순철 부행장은 대전여자상업고등학를 졸업해 1979년 조흥은행에 입행하면서 금융업에 처음 발을 들였다.

1998년 여신지원부 신용조사역을 거쳐 2001년 강서기업금융센터 지점장에 오른 그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4년만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신 부행장은 광화문, 신촌, 남부터미널 등 주요 거점 기업금융센터의 지점장으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았다.

기업금융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신 부행장은 지난해 1월 신한은행 최초로 여성 임원에 올랐다.

‘최초’란 타이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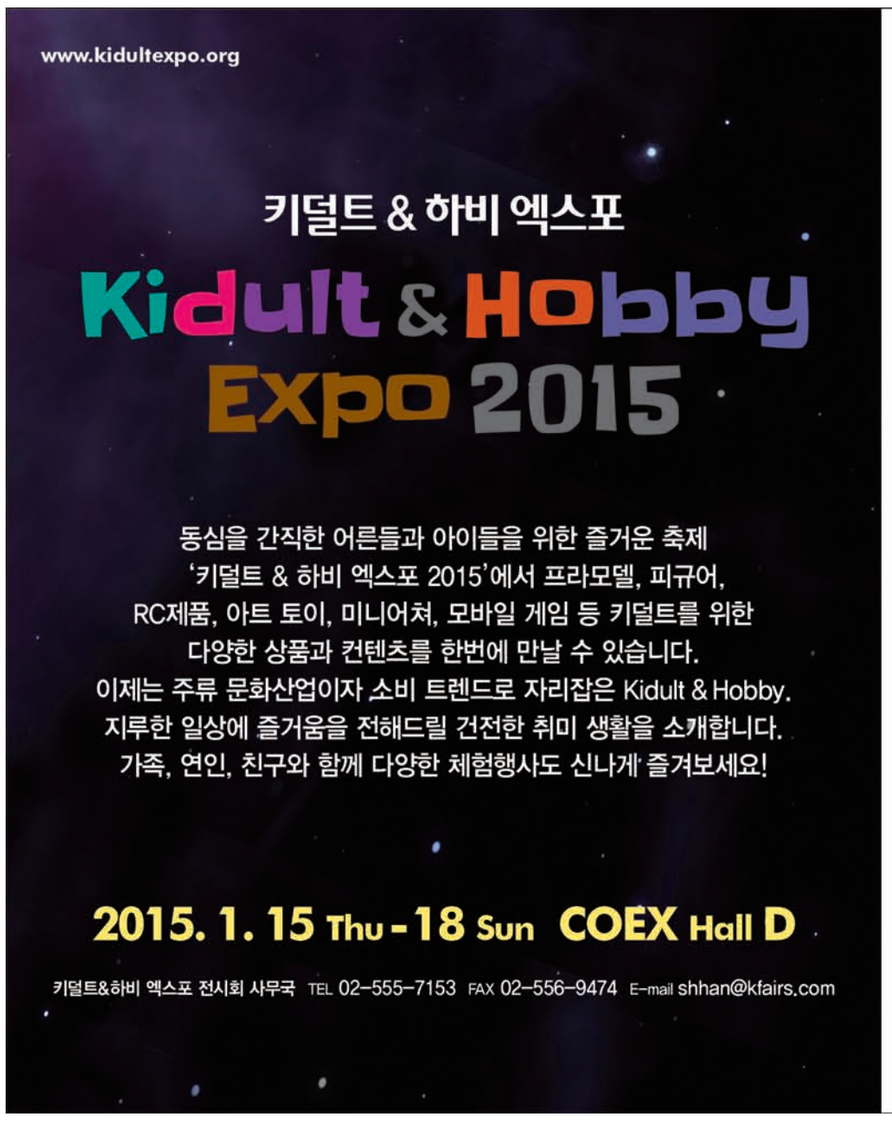
“후배들이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여성 임원으로서의 전례로 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 부행장은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다.

지천명을 넘어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는 매일 새벽 1시간씩 운동을 한 후 출근길에 오른다.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체력이 가장 중요해요.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박선현 기자 sunhyun@



카드사 핀테크 열풍…그런데 '혁신'이 없다

1000 2000 3000 4000

BC '페이올'·롯데 원클릭 '간편결제'…
국내 업체들 앞다퉈 서비스 내놨지만
새로운 기술 없고 기존과 차별성도…
금융당국 채근에 서둘러 서비스 시작
해외업체는 다양한 방식 결제에 접목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2015년을 겨냥해 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외 유명 전자결제 대행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핀테크(Fintech)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지 않아 기존 결제서비스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7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연말과 연초 일제히 '원클릭(Oneclick)'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놨으나 '핀테크'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제대행사가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매번 카드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어진 것 뿐이다. 카드정보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매번 입력해야 했던 불편을 줄였다.

이미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겐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앱카드는 최초 사용 때 카드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간편결제다. PC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하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서둘러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핀테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하자 서둘러 서비스를 내놨기 때문.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한 서비스를 내놓으라고 급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서둘러 상품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해외 핀테크 선두주자들이 보여준 혁신이 국내 카드사에서는 없다는 점이다.

BC카드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페이올(PayAll)' 서비스, 롯데카드가 지난달 18일 출시한 '원클릭 간편결제'는 모두 인증절차만 줄인 것이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도 지난달 29일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대카드는 하루 뒤인 30일, 하나카드는 지난 5일부터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이들 서비스는 가맹점 종류만 다를 뿐 모두 온라인 결제 단계를 줄이는 것에 집중돼 있다.

반면 애플은 지문인식과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편리성과 보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아마존의 원클릭 페이(One Click Pay), 이베이의 페이팔(Pay Pal), 구글의 체크아웃(Check out),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 Pay)는 NFC, 충전식 지불방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을 결제에 접목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크게 늘면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미 국내 카드사들의 경쟁자로 등장했다. 김창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가맹점 확보, 수수료율, 마케팅 경쟁에서 이기는 업체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해외 선도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떤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현기 비트허브 기자 henrykim@bithub.co.kr



카드사 2015년 신작 간편결제 특징

항목	주요 특징	글로벌 트렌드
사용처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지문인식, NFC 탑재 SNS와 결합 모바일충전 등 다양한 기술접목
결제 방법	최초 사용시 카드, 개인정보 등록 이후 아이디 비밀번호로 결제	
문제점	핀테크 분야 기술 접목 없음	



주요 기업별 플랫폼 현황

기업	OS	탑재 기기	애플리케이션	핀테크 확장
삼성전자	타이젠	스마트TV, 타이젠폰	6000개	없음
애플	iOS	아이폰 등 애플 기기	100만개 이상	애플페이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이외 다양한 기기	100만개 이상	구글월렛

TV로 들어간 '타이젠'…삼성 스마트 플랫폼 '完生의 꿈'

다른 가전과 연동 스마트홈 허브
웨어러블 기기 등 'IoT' 역량집중

삼성전자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자동화된 미래 디지털 사회 '유비쿼터스'를 구현할 플랫폼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타이젠 스마트TV'다. 타이젠은 각종 기기를 움직이는 OS(운영체제).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IoT(사물인터넷)기기를 타이젠 TV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디지털 혁명이 스마트TV로 완성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단순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스마트TV에 있는 셈이다.

스마트TV 플랫폼을 장악하면 OS 사용자들을 상대로 핀테크 등을 접목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모바일 OS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삼성이 미래 사회의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IoT 시대 준비 착착 = 삼성이 타이젠TV를 출시하는 이유는 IoT 시장을 꿰뚫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자체 OS가 없는 소니, 샤프, 필립스는 스마트 TV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다.

TV는 IoT의 출발점이다. TV는 다른 가전제품과 연결돼 결국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는 허브가 된다. 삼성은 최근 스마트홈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IoT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IoT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4월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에서 가전기기와 스마트기기를 연동시키는 '삼성 스마트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삼성은 '웨어러블 천재' 프라나브 미스트리를 삼성전자 상무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3세의 젊은 과학자이지만 IoT와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 권위자다.

◇스마트TV로 타이젠의 재출격 = 삼성이 타이젠TV를 키우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타이젠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간편결제 서비스로 출시한 삼성월렛은 시장에서 실패했다. 애플의 iOS처럼 결제사업으로 연결할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회사와 제휴만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삼성은 스마트폰에 타이젠을 접목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타이젠은 '미생(未生)'으로 끝났다. 오는 18일 인도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젠폰 'Z1'은 이미 네 번이나 출시가 미뤄졌다.

타이젠폰에서 TV로 방향 선회
"플랫폼 확장성 안뒤진다" 판단

타이젠 스마트폰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미래는 불투명하다. 타이젠에서 사용할 OS가 많지 않아서다. 지난해 6월 기준 타이젠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은 6000개밖에 되지 않는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이 각각 100만개를 훌쩍 넘는 것에 비하면 처참한 숫자다.

타이젠에 남은 기회는 IoT와 스마트홈이다. 타이젠 TV가 보급되면 앱 개발도 늘어날 수 있다. 타이젠 앱을 개발하다 그만두었다는 프리랜서 개발자 박모씨는 "타이젠은 퍼포먼스(성능)가 좋으니 시장만 확보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TV와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확충되면 개발자들이 다시 타이젠 개발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스마트폰이 아닌 TV인가 = 모바일을 토대로 구현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은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십조에 이르는 인터넷 정보와 개인의 재무·건강·보안관리를 통합할 플랫폼이 스마트TV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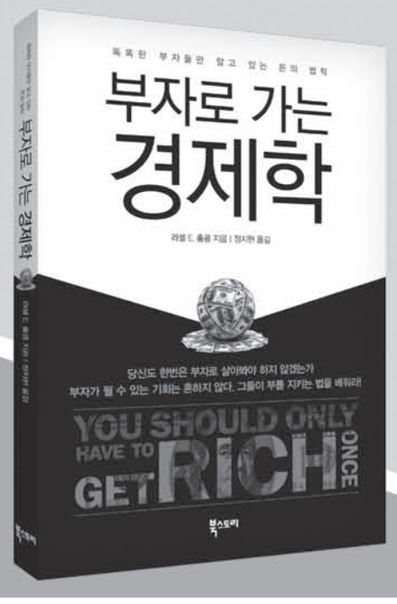
삼성은 스마트TV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강자다. 스마트TV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상을 손에 쥘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10억8800만대로 TV시장(2억3000만대)보다 4.7배 크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개인 사용자에 국한된 반면 TV는 가족이 함께 사용한다. 플랫폼의 확장성을 결정짓는 사용자 수로 따지면 TV가 스마트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시장조사 업체들은 삼성의 지난해 TV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인 약 5200만대로 예상된다. 향후 스마트홈 트렌드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심동욱 연구원은 "기기에 OS를 탑재해 사용처를 늘리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ICT(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에서 패턴화됐다"며 "삼성 또한 이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V 자체도 화제가 되겠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TV가 성공해서 플랫폼이 구축된 후가 더 주목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아 비트허브 기자 norainonme@bithub.co.kr

비트허브 bithub 공동제작

당신도 한번은
세상이 바뀌고, 시장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의 특별한 자산 관리법
부자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똑똑한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법칙
부자로 가는 경제학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들이 부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러셀 E. 홀콤 지음 | 정지현 옮김 | 값 13,000원



You Should Only Have To Get Rich Once



www.ebookstory.co.kr 북스토리

펀드시장 싱크탱크 '자산운용포럼' 출범

교수진·운용사 CEO 등 30명 멤버로 참여
침체된 시장 살릴 아이디어 공유 연구모임
이르면 내달 문 열고 매달 세미나 개최 예정

펀드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던 자산운용포럼(가칭)이 이르면 오는 2월 출범한다.

자산운용포럼은 운용사 등 업계와 각 분야 전문 교수진 등 학계가 한데 모여 침체된 펀드시장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연구 등 스터디를 하는 연구 모임의 성격을 지닌다.

사실상 자산운용 업계만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나 스터디 포럼은 이번이 최초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포럼의 사무국과 공식 주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이르면 오는 2월 자산운용포럼 공식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자산운용포럼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박영규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 등 각 분야 전문 교수진들과 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20여명 등 총 30여명이 포럼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펀드시장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대비 운용업계만을 위한 연구조직이나 포럼 등 창구가 없어 타 금융업에 비해 다소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업황 악화로 펀드시장이 날로 침체 국면을 걷자 펀드시장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자산운용포럼 출범 초기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스터디와 연구 개념의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현실성 없는 규제 등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등 펀드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응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포럼의 행정 실무를 돕는 금투협 회장 선거가 1월 20일쯤으로 예정되어 있어 출범 날짜가 2월에서 다소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 업계 고위관계자는 "당초 자산운용포럼은 자산운용협회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그동안 금융위기와 협회 간 통합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었다"며 "아직 출범 초기이다 보니 30여명의 멤버로 확정해서 운영하지만, 앞으로 자문사 등 펀드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멤버로 받아들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펀드시장을 살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NH-CA자산운용 RQFII 자격 취득

위안화로 中 본토 주식·채권 투자

NH-CA자산운용은 7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로부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위안화로 본토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원하는 해외 투자자, 특히 해외 자산운용사들에게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NH-CA자산운용은 중국외환관리국(SAFE)이 투자가능 금액(Quota)을 할당하는 대로, 즉시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상하이에 위치한 ABC-CA자산운용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것.

NH-CA 리테일마케팅 박영수 본부장은 "NH-CA는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를 네트워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RQFII투자에 가장 차별화된 운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BC-CA는 중국농업은행과 프랑스 아문디자산운용의 합작사로, 본토 중소형주 투자와 다양한 채권형 상품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신한BNPP, 국내 첫 中 본토 주식형펀드

환매 대금 수취기간 1주일로 단축… 수수료 부담도 낮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RQFII 제도를 활용한 국내 첫 중국 본토 주식형 펀드인 '신한BNPP 중국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 제1호(H)(주식)'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날부터 삼성증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BNPP 중국본토RQFII펀드 제1호'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은 RQFII 쿼터를 통해 출시하는 첫 펀드로, 일간 환매대금 송금이 가능하여 기존의 QFII 펀드 대비 환매 대금 수취기간이 과거 2주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즉 17시(오후 5시) 이전 기준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5영업일에 지급되어 환매 주기가 일주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매수수료 징구 대상 투자기간이 A클래스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축소되어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국 본토주식 자본차익 비과세 적용으로 중국 본토주식에 대한 자본차익 관련 과세 유보금 적립 및 환입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운 택스 클린(Tax Clean) 펀드이다.

이 상품은 중국 본토 주식 투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중국 현지 운용사인 HTF 인베스트먼트의 자문을 받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홍콩 법인에서 위탁 운용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RQFII 제도를 활용한 국내 첫 펀드를 당사에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동안 기간별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신한BNPP차이나본토증권자1호(H)[주식]' 운용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BNPP 중국본토RQFII펀드 제1호'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작년 10월 22일, 국내에서 최초로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로부터 RQFII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중국외환관리국(SAFE)으로부터 RQFII쿼터 30억위안(약 5500억원)을 승인받은 바 있다. RQFII상품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해서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RQFII 라이선스 신청서를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에 제출한 후 조용병 대표이사가 직접 중국의 CSRC와 SAFE을 방문하여 RQFII신청서 및 상품 출시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왔다.

김경아 기자 kakim@



미래에셋證 "연금저축 가입하고 뉴질랜드 가자"

'연금저축 미생 이벤트' 2015명에 양 관련 선물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 상품에 신규가입, 계약이전 또는 추가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연금저축 미생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

이번 이벤트는 2015년 양(羊)띠 해를 맞아 △뉴질랜드 여행상품권(5명), △대관령 양떼목장 체험상품권(10명), △문화상품권(2000명) 등 총 2015명에게 양과 관련된 상품을 선물한다. 더불어 양띠 고객(실명번호, 양력 기준) 전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조윤수 미래에셋증권 마케팅 팀장은 "연금은 먼 훗날의 노후자금으로만 생각해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자산"이라며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있는 노후준비의 필수품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를 참조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88-92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화투자證, 권용관 리테일본부장 임명

LG·우리 근무 33년 증권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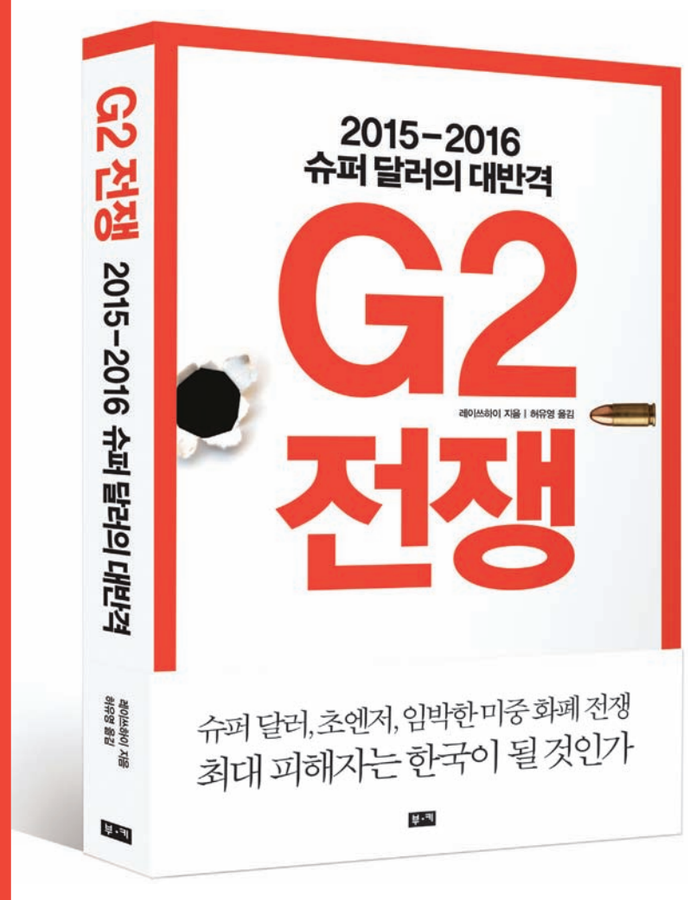
한화투자증권은 신임 리테일본부장으로 권용관(전 우리투자증권 경영지원 총괄·사진)씨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권용관 신임 본부장은 1959년생으로 경주고등학교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LG투자증권에 입사해 33년간 증권업계에서 일한 정통 증권맨이다. LG투자증권 입사 이후 지점장 및 영업기획부장 등을 거쳤으며, 우리투자증권에 합병된 이후에는 대구지역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WM사업부 대표, 경영지원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는 2014년에 고객중심 영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객들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리서치 매도리포트 발간, 과당매매 방지제도 도입, 정률 수수료 체계 전환, 고객지원센터 연장근무 등으로 고객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권용관 신임 리테일본부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중심 영업을 통해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미·중 화폐 전쟁 초읽기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온다

슈퍼 달러, 'G2 파트너' 중국 자본 시장을 정조준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IMF의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2004년 10월)

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 G2 전쟁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14,800원 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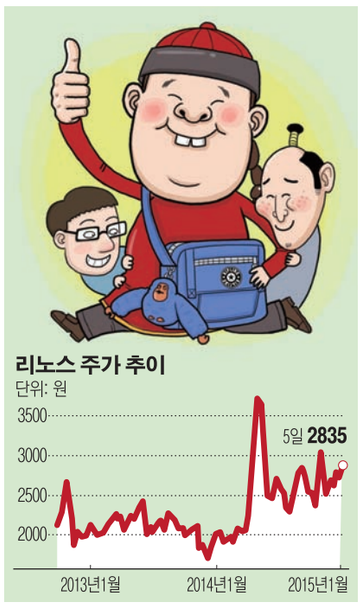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Bag그라운드’ 넓히는 리노스

〈가방〉



‘키플링’ 中·日 관광객에 인기… ‘가방 1+1’ 이벤트
‘이스트팩’ 복고 열풍에 국내 중·고생들 다시 찾아
면세점·아울렛에도 매장 열고 유통망 확장 나서



리노스가 가방 유통 사업(FnB) 부문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및 유통망 확장에 나섰다. 재난 안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리노스는 매출의 70% 이상이 FnB 사업에서 나오는 구조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키플링 가방의 인기가 높아, 2월 초 중국 춘절 연휴 동안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6일 리노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롯데 광명점과 동부산점 프리미엄 아울렛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며 “올해에도 유통망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노스는 2003년 11월 키플링, 2009년 11월 이스트팩 영업을 시작해 작년 3분기 기준 총 106개의 백화점(75개), 아울렛(11개), 면세점(16개), 직영대리점(4개)에서 판매하고 있다. 4분기 2곳의 프리미엄 아울렛에 신규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공격적인 유통망 확대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의 아울렛 선호 현상에 맞춰 기존의 유통망인 백화점, 면세점뿐만 아닌 프리미엄 아울렛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8억원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56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CAGR)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키플링 브랜드의 인기에 힘을 입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내에 방문하는 중국 및 일본인 관광객들의 키플링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스트팩 역시 복고 열풍이 불어 닥치면서 국내 중고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리노스는 신학기를 맞이해 공격적인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키플링 백팩을 구입하면 리버서블 백을 증정하는 ‘백플러스백(BAG+BAG)’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무한도전’, ‘아빠 어디가’, ‘개그콘서트’ 등의 PPL 협찬을 통해 키플링과 이스트팩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형 디자인 제품 기획(SMU),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신장 및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티브이로직, 신개념 스피커 들고 CES 行

오렌더 N시리즈 등 새 라인업



티브이로직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15 전시회에 참가한다.

CES에서 티브이로직은 신제품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고성능 휴대폰 앰프, 신개념 액티브 스피커, 스마트 뮤직서버 등 새로운 컨셉의 강화된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제품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어 N100과 N10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NAS에 저장된 DSD (DSF, DFF), WAV, FLAC, ALAC, APE, AIFF, M4A 파일 재생을 지원한다.

오렌더 N시리즈는 노이즈가 적은 고성능 디지털 오디오 전용 USB 출력을 내장하고 노이즈와 진동에 의한 음질저하를 없애기 위해 120GB의 대용량 SSD에 의한 음원 재생 방식을 채용, 플래그십 모델인 W20에 비견되는 음질을 자랑한다.

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등의 모바일 기기에 전용 앱을 설치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AMM(Aurender Media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리하게 NAS에 있는 음악을 검색, 재생할 수 있다.

휴대용 헤드폰 앰프인 오렌더 플로우(Flow)는 초고해상도 음원인 32bit/384kHz의 PCM과 DSD128 파일 재생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PC등과 연결해 헤드폰 본래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신개념 액티브 스피커, 캐스트파이 세븐(Cast-Fi 7)은 24W 출력의 앰프, DAC, 스피커와 7인치 광시야각 LCD 패널이 탑재대 파워풀한 사운드와 선명한 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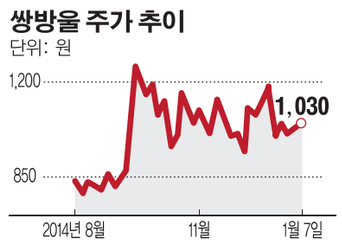
또 노트북, DVD/블루레이 플레이어, 미디어/디빅스 플레이어, 셋톱박스 등 HDMI로 출력하는 모든 소스기기들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티브이로직의 전시부스는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이 전시되는 베네시안 호텔과 샌즈엑스포의 ‘Kids and Technology’ zone에 마련될 예정이다. 베네시안 호텔에는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어, 뮤직서버 및 휴대폰 앰프를, 샌즈엑스포에서는 캐스트파이 세븐을 전시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쌍방울, 알리바바 모든 온라인 마켓 입점

B2B 알리바바닷컴과 지난해 골드파트너 계약
B2C 티몰은 이달 계약… 3월 전용관 만들기로
C2C 타오바오선 오픈마켓 형태로 이미 판매중



쌍방울이 알리바바 온라인 마켓과 잇따라 계약에 나서고 있다. B2B인 알리바바닷컴과 지난해 11월 골드파트너 계약을 한데 이어 B2C인 티몰과도 이 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전용관을 만들어 판매에 나선다.

6일 쌍방울 관계자는 “지난 11월 알리바바 B2B 알리바바 닷컴과 골드파트너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 중 B2C인 티몰과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티몰과 1월 중 계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전용관을 만들어 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일 주식시장에서는 쌍방울이 알리바바 계열의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쌍방울은 타오바오 판매 보다 알리바바 B2B(기업간 거래) 판매와 티몰 판매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B2B 중개 서비스 알리바바닷컴과 C2C 형태의 오픈마켓 타오바오(Taobao), B2C 오픈마켓 티몰(Tmall)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일 주식시장에 알려진 타오바오는 알리바바 계열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옥션과 비슷한 구조다. 개인사업자 누구나 타오바오에 올려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알리바바닷컴 B2B 판매와 티몰 판매는 정식 계약 업체만 가능하다.

중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B2B, B2C, C2C 모두에서 쌍방울이 판매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둬 알리바바에 입점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쌍방울은 알리바바닷컴(B2B)은 3000달러 정도, 티몰(B2C)은 연회비 1080만원(중국돈 6만원)으로 1년동안 매출이 1억800만원만 넘으면 면제를 받는 조건이라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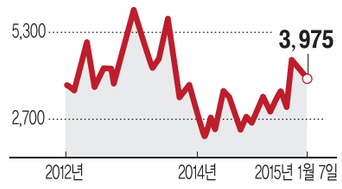
쌍방울 관계자는 “알리바바 B2B를 통해 해외 기업 디자이너나 중소기업들이 주로 연락이 온다”며 “티몰의 경우 당장의 매출 보다 중국 전국에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우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뽀통령’ 아닌 김종학프로덕션 인수

포인트아이 하한가 직행

공시돋보기



뽀로로 투자 루머에 상승세
‘김종학’ 인수 하루만에 15%↓

위치기반 솔루션 소프트웨어로 성장한 포인트아이가 드라마제작사를 전격 인수하면서 사업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당초 시장을 들뜨게했던 ‘뽀통령’은 사라지고 김종학프로덕션 인수로 확인되자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6일 포인트아이는 공시를 통해 지트리비앤티 계열사인 드라마 제작전문 김종학프로덕션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총 70억원이다.

회사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신규사업 진출을 천명해왔다. 신규사업이 ‘콘텐츠’에 방점이 찍히면서 시장에는 다양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영유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 저작권’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루머는 또 다른 루머를 낳았고 2개월여 동안 포인트아이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분기별 또는 연간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른바 ‘뽀통령(뽀로로+대통령)’의 위세는 영유아를 넘어 금융투자업계까지 적잖은 영향력을 미친 것. 이같은 루머에 대해 회사측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에도 소문은 더욱 커졌다.

결과적으로 포인트아이는 드라마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흡수했다. 포인트아이의 최대주주 SH홀딩스 역시 앞서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에이나인미디어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연예 기획 및 제작으로 삼았다. 포인트아이가 제작을 하고 에이나인이 유통을 하는 시너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종학프로덕션 인수 소식이 전해진 전날 포인트아이는 전거래일대비 14.97% 내린, 즉 하한가인 3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인트아이는 당초 위치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한 소프트웨어 업체였다. 2000년 설립돼 2006년 코스닥에 입성하기까지 오로지 위치기반 소프트웨어에 매진해왔다.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SH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영역을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제작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그림을 살폈을 때 김종학프로덕션 인수는 호재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뽀통령’과 무관하다는 상대적인 실망감이 더 짙었다.

포인트아이측은 “당초 지난해 주총때 정관이 변경된데에 따른 인수”라며 “향후 관련사업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FNC엔터테인먼트 상장후 해외 ‘로드쇼’

투자자 직접 방문해 기업설명

FNC엔터테인먼트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유수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 활동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해외투자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기업설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로드쇼를 통해 회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중국내 K-POP 시장확대 △FNC아카데미의 상하이광저우 법인 진출 등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한 비전과 전략도 알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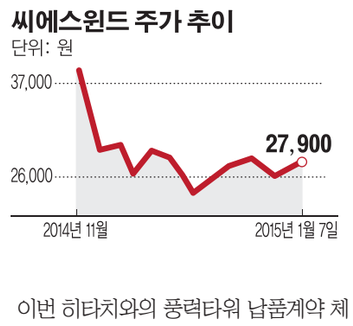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소속 아티스트 중 걸그룹인 AOA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신인 남성 아티스트 론칭을 통한 성장성 확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를 주관한 대신증권 박양주 연구원은 “상장회사의 아시아, 북미 등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IR활동은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에프엔씨엔터와 미팅을 희망한 해외기관이 약 40여 개사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어 본 로드쇼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씨에스윈드, 日 풍력시장 새바람

히타치코리아와 213만 달러 육상용 풍력타워 공급 계약
新시장 개척…해상용도 노려



씨에스윈드가 일본 풍력시장 첫 진출로 글로벌 거래처 다변화를 통한 지속성장을 이어간다.

글로벌 풍력타워 선도기업 씨에스윈드는 일본 히타치코리아와 213만 달러 규모의 육상용 풍력타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히타치와의 계약은 일본향 타워 제조 및 납품이 최초인 관계로 설계도면 협의 및 확정 절차가 보태져 장기 파트너쉽 체결 및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방침이다.

납품 기한은 2016년 3월 1일까지이며, 오는 10월 1일까지 예약물량의 62.5%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계약 기한까지 일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씨에스윈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수주금액보다 거래처 다변화와 신규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특히 히타치라는 일본 굴지의 회사를 신규 거래처로 확보하면서, 일본 풍력시장 첫 진출을 통해 향후 일본의 육상풍력은 물론 해상풍력 시장 및 관련 풍력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히타치와의 풍력타워 납품계약 체결은 그동안 일본 시장 진출의 제약요인이었던 관련법령(국토교통성 대신 인증) 개정을 통한 규정완화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진출을 통해 일본 풍력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멘스(SIMENS)나 에너콘(ENERCON) 등에도 납품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씨에스윈드는 세계 주요 풍력발전기 제작사인 베스타스(Vestas),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등 과의 장기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는 “씨에스윈드가 글로벌 풍력타워 1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글로벌 터빈메이커의 신뢰와 성원이 바탕이 됐다”며 “이번 히타치와의 첫 거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일본 육상풍력을 넘어 해상풍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네오아레나 ‘베나토르’ 중국 게임시장 합격점

비공개 테스트 재접속률 95%

네오아레나는 모바일RPG ‘베나토르’의 중국 비공개 테스트를 종료했다고 7일 밝혔다.

베나토르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10일간 iOS 애플리케이션 다섯 곳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비공개 테스트에서 테스트 기간 내 유저의 재 접속률이 95%에 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1일차 평균 게임 접속시간이 평균 26분이었던 것에 반해 5일차부터는 평균 60분 이상 상회하는 등 2배 이상 플레이 타임에 증가한 것에 대해 네오아레나는 베나토르의 방대한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유력 웹진에서 실시한 유저 평가에서 중국 최고 인기게임인 도탑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8.5점을 받는 등 중국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다.

중국서비스파트너인 에이팔디지털뮤직홀딩스에서는 베나토르를 자사의 주력 게임으로 정식 출시 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대규모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LG전자

LG 올레드 TV의 실제 두께입니다 5.97mm



지금 보시는 두께 그대로
자연색 그대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TV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백라이트를 없애 더 얇아지고 스스로 빛을 내어
자연색 그대로 볼 수 있는 LG 올레드 TV

LG 올레드 TV, 美 리뷰드닷컴 평가에서 만점
"미래 그 자체가 나타났다(The future has arrived)"
화질과 디자인 모두 최고 평가(모델명:65EC9700)

Good Change, Good Chance! Festival
LG 올레드 TV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기간 : 2015년 1월 1일 ~ 2월 2일)

※구매 모델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니, 매장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65EC9700 최상의 디스플레이 올레드와 최고의 해상도 울트라HD를 결합한 압도적 화질
스스로 빛을 내는 3,300만 서브픽셀의 풍부한 색채감, 퍼펙트 블랙, 완벽한 시야각, 5mm대의 페이퍼 슬림



LG OLED TV
올레드